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 행 인 안 병 만
편 집 인 검 전 태 현
주 간
편 집 장 강 민 홍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 대 학 보 ☎961-4152, 961-4183(FAX겸용)
학생기자실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 쇄 인 송 재 봉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51호 1995년 10월 10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지면안내

3면(심층보도)
서울총학, 예산집행내역 공개요구
지난 6일(금)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건설가계정을 비롯한 15개 항목의 예산집행현황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

4면(학술기획)
김정일 체제의 성격과 전망
김정일 체제는 모든 권력승계를 마치고 공식절차만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5면(학술정보)
학회 바로세우기 ①
작년 제1회 학술제의 평가속에서 오는 10월 열릴 제2회 종합예술제를 소개한다.

6면(생활문화)
컴퓨터 통신문학 살리기
활기를 띠며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 통신문학의 자리매김을 점검한다.

7면(문화)
꿈의 복원 95 세민제와 이후 과제
아픔과 진통을 겪은 후 복원된 세민제. 앞으로 세민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을 살펴본다.

8면(사회보도)
방북대표 귀환

남북학생들의 만남을 실현하기 위해 방북했던 정민주·이혜정 대표가 지난 3일(화) 귀환했다. 그들이 쓴 글들을 소개한다.

9면(사회보도)
5·18 특별법 특집
5·18 특별법의 취지에서부터 구체적 내용까지 요약정리해 준다.

10면(대학기획)
제5차 교육과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②
개정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지만 저변에 흐르는 공통분모는 개정은 돼야 한다라는 것이다.

세민제 성황리에 개최

올바른 평가속에 전통으로 이어져야

83년 이후 단절된 세민제를 외대의 전통으로 복원한다는 의의로 진행된 '95 세민제가 2천여 학생들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95 세계민속예술제(세민제)가 지난 6일(금)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성황리에 거행됐다.

83년 제7회를 마지막으로 단절된 세민제를 외대의 전통으로 복원한다는 의의로 진행된 '95세민제는 2천여명의 외대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대풍물패연합의 힘찬 풍물소리로 '꿈의 복원'을 모토로한 세민제의 막이 올랐다. 총학생회장 하용갑(세민제 준비위원장, 정책·행정 4)군은 복원사를 통해 "단절의 아픔을 아시워하며 우리 외대인의 전통을 찾기 위해 옛 자료를 찾고 해묵은 비디오 테잎과 사진을 돌려보던 일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었다"라며 소감을 밝히고 "영광의 복원은 전 외대인의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양어대 언어학과 계열 11개 과가 민속춤, 원어노래 등을 선보였다. 우리를 먼저 알고 떠나는 세계여행을 위해 전통 춤사위가 섞인 율동과 함께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로 한국을 출발, 동·서양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외대인이 세계 각국의 민속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각국의 문화와 풍속을 담은 영상을 더해 이해를 돕기도 했다. 또 외대 40년의 자취와 각 패들의 준비과정을 엮은 영상이 펼쳐졌다.

세민제 집행위원 김준우(서양·서반아어 3)군은 "세민제의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늘의 성과와 오류를 평가하고 남아있는 많은 과제를 외대인의 관심과 애정으로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전통을 이어내는 것이 세민제의 복원이다"라며 7천 외대인이 만드는 세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짧은 준비기간과 끊어진 것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첫 시도의 어려움속에서도 학생들의 관심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관련기사 7면〉 김태형 기자

용인 후복관 공사장서 불

화재대비 시설 미흡해

용인캠퍼스에서 건설중인 후생복지관 공사장 앞 3곳에서 지난 6일(금) 오후 6시 30분경 건축자재 폐기물을 소각하던 중 불길이 7~8m 높이로 치솟는 화재가 발생, 1시간 30여분만에 총학생회 간부들과 인근 건물 관리자들에 의해 별 피해없이 진화됐다. 이번 화재의 목격자인 총학생회 간부들은 공사책임자인 삼환기업의 관리 소홀과 소방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사건원인과 책임여부를 둘러싸고 총학생회와 삼환기업과 의견이 엇갈려 정확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이번 화재에 대해 후생복지관 공사책임자 최승범씨는 "그날 건축자재 폐기물 양이 평소보다 많았고 인화성이 높은 스티로폼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번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기획부장 곽태훈(서학·서반아어 2)군은 "건축자재 폐기물을 학교안에서 그냥 태운다는 것은 분명 불법이고, 불이 꺼질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할 감독자가 없었던 것은 삼환기업측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어느 공사장에서나 폐기물 소각은 이뤄지고 있다"라고 응수했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정석민(동학·마인어 4)군은 "불길이 상당히 번져있을 즈음 삼환기업 현장사무소 담당직원 한명만 왔을 뿐 공사현장에 있어야 할 야간관리 책임자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해 삼환기업의 현장관리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불길이 솟고 있는 동안 건물 꼭대기에서 3명의 일꾼이 불길이 어디로 번지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진화 당시 학생회관과 신감의동에 비치된 소화기의 대부분이 유효기간이 지나고 내용이 없는 등 부실한 것이 많아 후생복지관 공사건물 2층에 있던 공사용 용수로 진화돼 진화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주변엔 용접용 고압산소통 및 가스통, 인화성이 높은 스티로폼 등이 방치돼 있어 큰 불길로 번져나갈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다. 곽근영 기자

방북대표 판문점으로 귀국

경찰, 판문점 환영단 40명 연행

지난 8월 15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이혜정·정민주 대표가 지난 3일(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두대표의 무사귀환을 위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2천여명의 학생들은 3일 오전 '두대표 환영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청년학생결의대회'를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학생들은 "두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정부의 처사는 반통일 정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대표들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이룰 것을 다짐했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독립문역과 통일로 입구·명동 등에서 국보법 철폐와 두대표 석방에 관한 선전전을 진행했으나 경찰측과 큰 마찰은 없었다. 명동성당에서 열린 정리집회에 참가한 인천시립대 부총학생회장은 "두대표의 방북은 남과 북의 실질적 만남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두 대표의 활동을 평가했다.

이혜정·정민주 대표는 북한 방문 기간동안 권양에서 열린 8·15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한 후 평양시내를 구경하고 박물관과 평양산원 등 현대적인 시설도 관람했다고 한다. 또한 백두산, 역사유적지 등을 기행하면서 50년간 다르게 보존돼온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느끼기도 했다. 9월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시작으로 북한의 각 대학을 방문하면서 남한 대학생의 생활을 담은 비디오 상영과 사진 전시회를 통해 남북 2백만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단군릉 답사와 두대표 환영을 위해 판문점으로 출발한 각 지역 대표단 40명은 임진각에서 전원 연행됐다. 〈관련기사 8면〉 고병권 기자

박교수, 7·8차 공판 열려

오는 23일 선고 공판

지난 2일(월) 오후 2시 박창희 교수 7차공판이 열렸다. 7차공판에서도 5·6차 공판에 이어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일본에서 박교수와 친하게 지냈던 아자와 교수와 박교수를 수사했던 경찰청 소속 김학구씨가 참석했다.

첫 증인으로 나온 아자와 교수에게는 박교수와 서태수씨와의 관계, 일본에서의 박교수 행적 등에 관련해 질문이 오고갔으나 박교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두번째 증인으로 나온 김학구씨에게는 △박현서 교수 진술내용 △진술과정상에서의 박현서 교수 상황 △수사의 심도성 등 박현서 교수와 관련해 심문이 진행됐다.

어제(9일)는 8차공판이 열렸다. 어제 공판에서는 박교수에 대한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검찰의 논거 및 구형이 있었다. 그리고 오는 23일(월)에는 1심의 마지막 공판인 9차공판(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선고가 확정되는데, 박교수의 아들 박재혁씨는 "1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며 "2심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주 기자

반의자

'간' 큰 검찰

▲아마 정치권력이 검찰을 자신의 수중에 두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바로 이러한 검찰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그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왔다. 여러나라에서는 아예 검찰총장, 검사장 등을 선거하거나 검찰권의 행사에 일반시민을 참여시키는 참심제(독일등 대부분의 유럽 및 사회주의 국가) 또는 배심제(영국)를 도입하여 왔거나 검찰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검찰심사회제도(일본) 등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검찰이 담당하여 공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따로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게 하는 나라(미국)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결국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며 "법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간' 큰 검찰을 만들어 냈다.

청문회 위증관련수사를 두고 최근 몇일 사이에 벌어진 상황 또한 검찰이 얼마나 비독립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일(월) 검찰은 5·18 위증과 관련, 민변에 의해 고발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7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5·18관련 특별법제정 요구를 희석화시키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기대를 가지고 이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5일 민자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고발의 주체는 '국회'여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를 반대하고 나서자마자 검찰은 급작스럽게 수사방침을 철회했다.

▲대한변협이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김수환 추기경까지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5·18문제가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안이한 태도로 민자당의 당론을 따르는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위화도 회군 후의 이씨 왕조를 누가 처벌하겠는가, 정몽주의 살인범을 누가 처벌하겠는가"하는 검찰의 언급에서 우리는 '권력의 주구'이니 뭐니 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 역사관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러한 검찰의 초라한 역사관에 더이상 광주 영령들을 맡길수 없다는 전국민적 요구를 특별검사제도입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강민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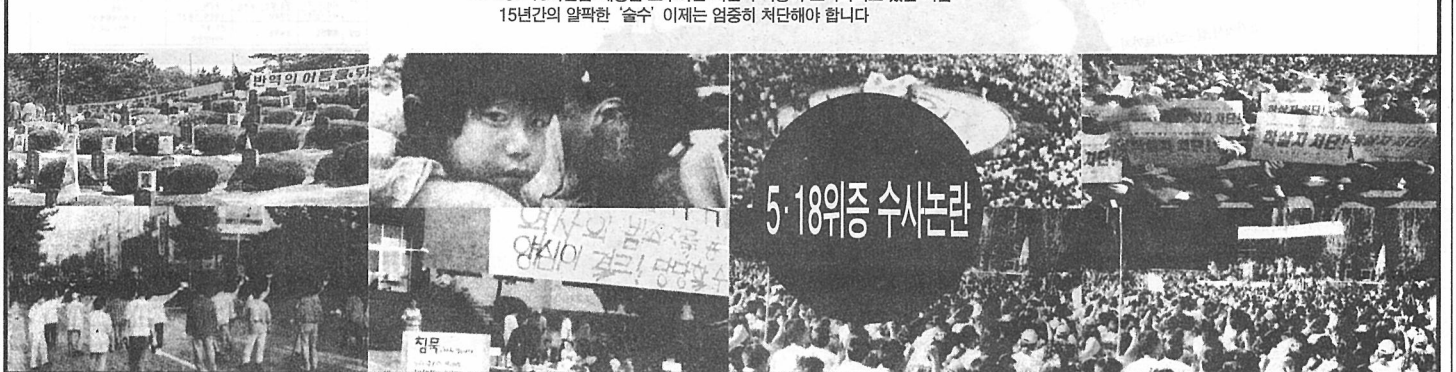
5·18 끝없는 외침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또 빠져나갈 구멍을 파고 있습니다

'국회위증' 수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거론하며
5·18특별법 제정 문제를 또다시 희석화 하려 합니다.
모를리가 없습니다.

'5·18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이 조직화되고 있는 지금
15년간의 얄팍한 '술수' 이제는 엄중히 처단해야 합니다



사 설

10월의 각성

임년중 10월만큼 기념일과 행사가 많은 달은 없다. 문화의달 답게 뜻깊은 행사들이 연일 우리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대학로의 연극무대가 젊은 대학생 관객으로 가득 메워지고 크고 작은 화랑과 연주회장은 예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 앞은 독서광들로 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을 아끼고 존중하는 수많은 견전한 대학인들과 시민들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들은 아름다운 심성의 소유자임에 틀림이 없다. 아름다운 심성이란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지 불의 인지를 분별하고 선과악을 구분하여 정의와 선을 추구하는 인격을 말한다. 대학인이 견지(堅持)해야 할 덕목이다.

10월의 서늘한 가을바람을 느낄때, 코발트빛 하늘과 어쩌다 천재 전위화가의 붓끝으로 연출된 듯한 신비한 형상의 구름을 바라볼 때, 서서히 변해가는 산야의 오묘한 갈색의 조화를 확인할때,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의 찬란한 반짝임 속에서 우연히 별똥별(流星)을 발견할 때, 끝없이 펼쳐진 평야의 고개숙인 황금빛 벼이삭을 바라볼 때, 어느 산모퉁 깊에서 우연히 만난 산새를 바라보며 머루와 다래를 따 먹을때, 우리는 진실로 가득찬 잊혀진 마음의 고향을 문득 그리워 하게 된다. 10월이라고 하는 시간적 자연현상만이 부여할 수 있는 교훈적인 사색의 기회이다.

요즈음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일련의 사건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느라면 모든 문제발단이 지나친 인간의 이기적 심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원불변의 지존의 가치이자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고수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규범이 망각되고 있다. 진실과 정의, 선과 아름다움, 사랑의 실천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최근 학내의 대학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크고 작은 갈등도 따지고 보면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와 사랑의 정신이 조금만이라도 실천되었던 들 아무런 마찰도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일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검찰의 정치적 관단에 항의하여 5·18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서명으로 요구한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등이 무려 6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역사에 맡기자는게 검찰의 논리라면 법치주의의 정통성 확립은 요원(遙遠)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범죄에는 반드시 국민적 단죄가 따른다는 교훈을 후손과 역사에 남겨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쥐을 수 있는 논리를 쉽게 찾을수 없다는 사실이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은 차후의 작업이다. 정의와 진실을 깨우치고 배우는 상아탑의 학생들이 아직도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들고 교문앞을 어지럽히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역사앞에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있기 위해서라도 5·18의 얽힌 매듭은 풀려야만 한다. 얼마전 남태평양 무루로아섬에서 실시된 프랑스의 핵실험은 세계 시민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였다. 프랑스는 핵에 의한 전쟁억제론으로 핵실험을 통해 지구환경을 파괴한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감자의 억지논리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후손에게 핵공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도 도처에서 일고 있는 핵실험에 대한 비폭력 저항운동에 참여하여야 할 당위성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인디언들은 자연의 변화와 심상의 움직임을 주제로 그 달의 명칭을 정했다고 한다. 구성원간의 상호존중과 이해심의 부족을 통감하고 진실과 정의를 촉구하는 역사의식의 결여가 지적되며, 인류의 평화와 지구환경의 보존에 대한 열원이 제기되고 있는 10월을 '각성의 달'로 설정하여 불신을 믿음으로, 반목을 용화로, 대립을 사랑과 이해로 승화시켜 나아갈 대학도 국가도 세계도 발전과 평화가 보장될 것이다.

흡산의 소리

외대인들의 열린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외대라는 공동체 실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백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시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천리안 OEDAE, 하이텔 OEDAE, 나우누리 OEDAE 모두 동일)
원고에 소속 과 · 학년 · 이름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열린 대학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합시다.

□ 방송제를 보고나서

건전한 비판정신 느낄수 있어

지난 10월 5일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는 외대교육방송국의 방송제가 열렸다.

95년 한해는 정말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것 때문에 민자당은 지자체 선거에서 패배를 맛봤다. 그러면 그것이 우연이었던가? 방송제를 보았다면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방송제의 내용은 대구 가스폭발사건, 동성연애자의 인권문제, 덕적도 핵폐기장 문제였다.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국원들은 각 지방마다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 현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먼저 방송국원들의 성실함과 열의에 존경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방송제를 보면서 두번의 눈물을 흘렸다. 왜 우리의 학생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저승으로 가야만하는가? 자식잃은 부모의 절규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내가 바보란 말인가?

또한 덕적도에 핵폐기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리로 나와 목이 쉬어라 반대구호를 외쳐되는 우리 고향의 어머니들을 거리로 내몬자들을 생각하며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방송제에서 느낀것이 많다. 재미만 추구하는 방송제였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건전한 비판정신과 올바른 사회를 바라는 대학인의 지성과 실천. 모든 학우들은 진정 배워야 할 것이다.

이원영 (서양 · 독일어 3)

교육과정 개정, 기만성 드러나

한마디로 놀랍다. 아니 심한 배신감마저 느낀다. 지난 4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8월말에 전격 발표된 것이 한달만에 백지화되다니. 애초에 논의를 꺼낸 의도 자체가 의심스러워진다.

교육과정 개정안(개정안) 말이다.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학보 개강호에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발표돼 학내의 큰 이슈로 떠올랐던 개정안의 핵심시안들이 97년 이후로 유보 되었다. 아니 97년부터 실시한다는 것도 확실치 않다. 이렇게 말하면 교수님들이 "무슨 소리냐? 교양과정과 실용영어 부분이 대폭 개정되어 내년부터 실시되지 않느냐"라고 하변할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서 개정연구위원 5인을 포함한 당신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수년전부터 학생들이 지겹도록 요구해 온 전공과정 개편을 위해 전공 교수들이 무엇을 했는가 말이다. 내가 말한 핵심시안이란 최소전공 인정학점제의 도입과 '필수과목의 최소화, 선택과목의 최대화'라는 기치를 내건 각과 전공과정의 개정을 가리킨다. 이쯤 하면 내가 여기서 굳이 개정안의 내용이 어떻고, 전공과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그간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안일하게 진행되어 왔는가와 현재 학생들이 어떻게 기만당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을 뿐이다. 지난 9월 18일에 열린 중앙교과과정 심의위원회(사실상 각 단대 학장회의임)에서 (위에서 말한) 핵심시안들이 97년 이후로 유보된 이유는 "교수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럼 애초에 개정작업에 착수하면서 교수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날 회의에서 각 단대 학장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전공이수학점의 상향 혹은 하향조정', '제2 외국어의 강화' 등 개정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었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어문계열에서는 전공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하자고 하고 비어문계열에서는 하향조정해도 수용 가능하다고 해서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정확히 말해 이건 마찰이 아니다. 문제는 엄연히 다른 어문계열과 비어문계열의 교육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전공이수학점을 천편일률적으로(54학점) 정해버린 데에 있다. 개정연구위원들이 이부분에 대한 교수들의 반발을 예상치 못했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여기까진 좋다. 더 화가 나는 것은 확정되지도 않은 가안(假案)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조정해서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턱대고 연기해버린 행정 편의주의이다. 가안이란 조정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본다'는 속담이 있다. 개정안이 나온 후부터 조목조목 그 내용을 분석하거나 "이번엔 전공과정이 좀 바뀌겠지. 지역학과목도 개설된다며"하면서 은근히 기대를 해 온 우리 불쌍한 학생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이종국(서양 · 영어 3)

노천지하, 환경 문제 심각

겨울이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나는 노천극장 지하에서 거의 6시간 이상 생활하는 사람이다.

일단 추운 것은 전기 히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치자.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화장실 문제다. 저녁에 노천극장 지하에 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설사가 난다고 치자. 그러면 본관과 사회과학관은 문이 잠겨 있고 천상 학생회관 까지 가야한다. 남자는 1층이지만 여자는 2층까지 가야한다. 노천지하에 있는 동아리 성원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본관 오른쪽 학적과 방즙에 외부로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의 설치를 바란다.

지하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측에서 누누히 말한 바기 때문에 지하에 화장실을 설치할 것은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학교라면 또 국책대학으로 선정될 만한 학교라면 이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환기 문제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기가 더욱 안된다. 특히 가을 이후로는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가라 앉기 때문에 환기가 더욱 안된다. 노천지하에 물론 환기구멍은 있지만 그정도론 환기가 부족하다. 총장님이 직접 노천극장지하에 1시간 정도만 계셔보신다면 왜 내가 이런 말을 할까 쉽게 아실 것이다. 동아리 방마다 환풍기를 설치해 주시기를 노천지하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감히 요구하는 바이다.

김동익 (법 · 법학 2)

□ 실용영어 활성을 위한 몇가지 제언

'차려논 밥상에 젓가락 놓자' 라는 생각 버려야

모든 외대생에게 영어만은 자신이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학교도 교책과목으로 정하고 총장도 세계화에 발맞추어 영어는 제2의 국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세명의 교수가 겨울 내내 연구해서 실용영어부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구성돼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까지 내서 거기에 따라 부장과 두명의 교수까지 뽑아 놓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사실, 우리학교가 이 일을 해낼 능력이 있는가 걱정이 된다. 1백50명 반을 30명으로 만들어도 강사료가 5배 더 든다. 30명도 이상적인 수는 아니지만 우선 그렇게 계산된다. 월 수 금이나 화 목 토로 수업을 진행하고 전일제 교육을 할 때 학교 행정요원들의 고충을 처리할 능력이 있을까. 선생위주로 하루나 이틀에 끝내버린 수업을 3일을 꼭 채워 그나마 책임있게 가르치려는 강사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까. 강사들이 서로 연구하고 토의하며 학생을 만나 지도할 만한 연구실이 갖춰질 수 있을까. 학기 시작전에 1주일정도 강사들이 모여 교수법과 교육준비 세미나를 할 비용이 염출될 수 있을까. 신뢰할만한 시험문제의 개발과 녹음,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강사평가제가 실시돼 가장 효율적인 교육을 한 강사들에게 충분히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등 지금까지는 예상되지 않았던 자금과 공간문제가 필수요소로 등장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밟아 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차려놓은 밥상에 젓가락만 하나 더 놓으면 된다는 팽창방법은 지양해야 한다. 교실이 부족한데도 학생을 늘인다던가, 교수실도 없는데 교수를 뽑아놓고 본다든가 하게되면 적은 수로 교육을 방아야하는 과목도 콩나물교실로 시간만 때우게 되고 뱉밖이 교수실도 내놓아야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몇가지 가상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 우선 학생정원을 줄여가는 방법이 있다. 정원자율화는 학교의 능력에 맞추어 학생 수를 맞추라는 말일 것이다. 학교의 능력이 커감에 따라 차츰 늘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화에 맞추어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되려면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이런 교육을 할 것인가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할 것인가를 단과대학별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대학별 경쟁체제를 시도하는 것도 되고 확일화를 막고 학습의욕을 자극하는 방법도 되기 때문이다.

자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강사 수급문제는 풀릴 것이다. 미국의 티에이처럼 대학원생이거나 대학원 졸업생이면 공부하면서 가르치면 될 것이다. 영어를 기르치면서 자기 영어실력을 튼튼히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면 가르치며 배우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실용영어부가 해야할 일은 시험문제개발, 교재개발, 강사교육이 주 업무가 돼야한다. 강사자신이 잘 배우게 되고 잘 가르치게 됨으로써 뿌듯한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다.

공간문제는 우선 있는 교실과 교수실로 시작하되 영어교육에 알맞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한다는 결론을 얻게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대학의 교책과목으로서 실용영어가 자리를 잡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김재민(실용영어부장, 본교 영어교육과 교수)

역시 좋은 학교야, 그만 투자해야지

- 재단이사 -

왕산이(?) 에이 아니겠지
-온누리-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무식이-

잘난 학생들 반만 따라오면 될 걸…
-외대인-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군분투하는 7천 학우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L 에이레네-

백지 대자보

주제: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95대학평가에서 본교가 10위안에 든것은 두가지 뿐이었다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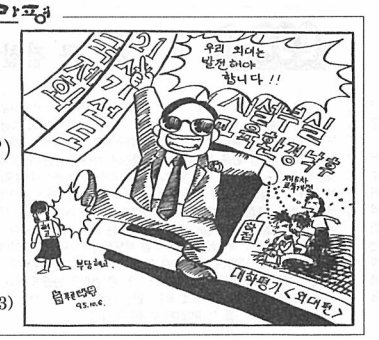
두 부문 씩이나!
-아침이-

쯧쯧…
안테나 두개 세웠다고 으시대더니만…
-노어과 투덜이-

당연한 결과다.
학교 · 학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채찍질로 받아들이자
-우등생-

쪽팔려 학교 못 다니겠다.
-반쪽이-

독자만평



서울총학, 예산집행 세부내역 공개요구

건설가계정·학생지도비 등 15개 항목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6일(금) '95년 예산 주요내역서'(내역서) 관련 재무처에 건설가계정을 비롯한 그 구체적 집행에 의문이 이는 15개 항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 △보건체련비 △실험실습비 △행사비 △조경·기타시설 유지비 △건물유지비 △장비유지비 △세입예산 ·세출예산 편성요령 △건설가계정 △사무용 기계기구 매입비 △수수료 △학생지도비 △퇴직금여 적립예금 지출 △신문방송비 △행사보조비 △기타경비 등의 15개 항목이 총학생회가 요구하는 답변사항이다.

이와관련 부총학생회장 정성철(법·법학 4)군은 "11월말이 96년 등록금 인상액이 책정되는 시기인데 지출내역엔 포함돼 있으나 실제적으로 집행이 미심쩍은 부분을 짚어줌으로써 대학당국의 인상근거의 불합리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며 공문서 발송 배경을 밝혔다.

총학생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답변을 요하는 것은 건설가계정과 95년도 예산 편성요령중 세입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이다.

○… 총학생회는 세입·세출예산 관련, 지난 2월 3일(금)대학당국이 밝힌 내역서중 재단전입금 확충에 관한 사항이 없는 이유와 인건비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인건비는 유수종합대학 평균수준을 유지한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재정규모에서 외대를 능가하는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등과 인건비를 비교 결정하는 이유' 등의 답변을 요구했다.

○… 건설가계정과 관련, 지난 1월 27일(금)대학당국의 밝힌 95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역서 중 외국학종합연구센터(외국학 센터)·통역대학원 건설에 관련된 95년 건설가계정이 96년 회계에 어떻게 이월되는지의 구체적 방안을 물었다.

이에대해 정군은 "외국학센터 건립액이 매년 책정돼 있음에도 대학당국이 밝힌 내역서중 재단전입금 확충에 관한 사항이 없는 이유와 인건비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 이 밖에 학교 예산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으로 △실험실습비 △건물유지비 △보건체련비 등이 있다.

건물유지비에 대해 총학생회는 건물도색비, 각 건물 개·보수, 대학원·식당·시청각실의 난방시설, 도시가스 설치, 전기시설 보수, 수도 시설, 창문공사 및 기타 위생시설등의 항목의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올 해 4월 사범대생들의 교생실습비 문제로 말이 많았던 실험실습비에대해 시청각 실험교재경비, 자연대 실험실습경비, 실습기자재 보수정비에 대한 93·94년 결산내역과 현재 사용내역을 요청했다.

부족한 체육기자재와 체육부 지원에 관한 보건체련비의 실제적 사용내역을 묻는 반면, "학생들의 물음에 동문서답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길 바란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근거확보와 학생참여보장을 외치며 벌였던 양캠퍼스 총학생회의 등록금투쟁이 이제 96년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학당국의 예산집행여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이에 정군은 "교육환경·재정·내용을 골자로 한 외대발전투쟁에서 우리는 올 95년에 마련한 근거들을 토대로 내년엔 보다 성숙한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할것이다"라며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고 "학교 발전은 학교당국이나 재단을 믿어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야 하는 문제이다"라며 이제는 외대발전의 의지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대학원 증축 서울캠퍼스 대학원건물이 1층 증설된다. 10개 강의실의 증축으로 강의실 부족난에 허덕이는 대학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95년 새학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통역대학원, 올해말 착공

국제회의실·동시통역실 등 갖춰

오는 96년 서울캠퍼스에 연면적 1천5백여평 규모의 통역대학원 건물이 들어선다. 6층(지상 5층, 지하 1층)높이로 대학원과 어학연수원 사이 현 수송부 부지에 지어질 통역대학원은 올해말 착공해 내년중 완공될 계획이다.

세계유일의 단일 건물로 전문 통역요원의 산실이 될 통역대학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로 2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실 등 통역대학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건축된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수송부 자리에 건물을 지어 줄어드는 주차공간은 지하 1층의 주차장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캠퍼스 대학원에 강의실 10개호실이 들어선다. 대학원의 강의실 증설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강의실 증설공사는 대학원 5층위에 1층을 증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1천5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을 실시, 6층 증설이 가능하다는 판정아래 5층에 지지대 및 발판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건설부 한상빈씨는 "통역대학원은 설계 및 시공기업 입찰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것"이라며 "대학원 강의실 증설은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완공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캠퍼스에서 시공중인 다목적강의동은 현재 30%정도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다.

〈통역대학원 각층별 용도〉

층 별	용도
지 하 층	주차장 및 기계실
지상 1층	강의실 13개소
지상 2층	국제회의실(2백인용)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지상 3층	강의실 번역센터 스터디룸
지상 4층	강의실 비디오실 도서실
지상 5층	동시통역실

세계유일의 단일건물로써 전문통역요원을 양성할 통역대학원이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올해말 착공된다. 〈조감도〉

□ 열린총장실(10/4)

"비어학계열 소외, 지역학으로 극복할 것"

학생들이 생활 곳곳에서 느끼는 가려움을 시원하게 긁어주지는 못하지만 어느 지점인지 다함께 짚어보는 열린총장실, 총장은 이 공간을 통해 많이 배우고 훗수를 거듭할수록 보람을 느끼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하기 시작했다.

20명의 경영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이날은 지난 3일(화) 중앙일보에 실린 전국대학평가에서 경영학과 평가기사가 화두로 떠올랐다.

"본교 특성상 어문계열 위주의 발전계획으로 경영학과가 소외당하는 느낌이다", "부산대 경북대 아주대가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등 본교 경영학과의 위상이 날로 하락하는 것 같다", "세계화전략에서 상경대계열의 집중육성과 투자는 필수" 등 봇물터지듯 이어진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감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이에 안총장은 "이 평가는 본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중앙일보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따라서 이는 객관성 없는 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평가가 보여주듯 본교 경영학과가 열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 이 평가에 대한 객관성 여부의 의견차이로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이에 총장은 "며칠전 믿음만한 대학평가기관에서 며칠에 걸쳐 본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조사해갔으나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때 자세히 얘기하자", "내가 보기에 본교 경영학과는 최고다"라고 말해 고조된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평가기사에 대한 논란은 학생들이 생활속에서 평소에 느꼈던 구체적인 문제점 지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학생들의 의견과 이에 대한 총장의 답변은 -공인회계사(CPA)를 많이 배출하기 위한 지원방안 =담당교수와 협의하라 -상경대에 관련된 자료실과 열람실을 상경대에 배치해달라 =전체적인 공간문제가 조정되면 그때 해결하겠다 -현재 5시까지의 전산실 이용시간을 연장해달라 =컴퓨터 공부를 하기 위한 의도에 찬성한다. 학과장과 상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제출해라 등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이날도 총장은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안총장은 "요구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내라"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안총장은 한 학생이 경영학과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애기가 길어지자 "내게 강의할 필요는 없다"라며 도중 애기를 자르기도 했다. 서로의 의견을 진솔히 나눈다는 열린총장실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상경대계열의 학부제도입에 대한 물음에서 안총장은 "학부제는 본교 특성상 힘들고 이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도 없어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며 "대신 복수전공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문계열의 어학중심과 비어문계열의 지역학을 중심으로 한 본교의 발전상을 제시했다. 안총장이 그동안 표명했던 외대발전을 견인해나갈 쌍두마차가 '어학'과 '지역학'임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날은 이외에도 △농활봉사 학점인정제를 재고해달라 △경영학과 학년별 수강신청학점을 타 단대와 같게 해달라 △구내식당 질을 개선해달라 △동아리지원을 전략적으로 해서 집중육성하자 등의 의견도 나왔다. 또한 대학원생의 전산실 구내전화 설치 요구도 있었다.

곽근영 기자

수강신청취소, 13일까지

무더기 취소로 폐강위험 없어야

학기초에 신청했던 수강과목을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작년 2학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수강신청취소제도(Withdraw, W제도)가 이번학기에는 지난 2일(월)부터 오는 13일(금)까지 실시된다.

수강취소는 해당 교학과에 비치된 서류에 담당교수와 학과장 확인을 거쳐 교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교수와 학과장 확인은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다. 자격은 취소하여 12학점미만이 안되는 자(4학년 제외)에게 주어지며 이는 성적표상에 W라고 기재되고 평점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W제도는 작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대학당국과의 '재수강시 B0까지의 학점제한 철폐'가 논의될때 함께 거론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돼 폐해를 일으킨 경우도 적지 않다.

우선은 W제도를 본인의 출석미달로 인한 낙제처리(F학점)를 무마하고자 이용하는 경우다. 이는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 실시된 취지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쉽게 포기하는 경향까지 대두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음은 무더기로 취소할 경우 폐강의 위험성이다. 실제로 용인캠퍼스 자연대 어느 과는 무더기 취소로 2-3명만이 남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행히 이 경우는 분반한 상태에서 같은 내용을 강의하는 다른반으로의 편입이 가능했지만 이같은 사태발생의 위험성은 다분하다.

이에 대해 용인캠퍼스 한 관계자는 "폐강의 위험에 직면했을시 담당교수나 학생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감감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아직 이 폐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밝혔다.

곽근영 기자

사 령

임

수습기자

고영진(정책·신방 1)
김남균(동양·이탈어 1)
김모래(서학·독일어 1)
김주영(동양·일본어 1)
박수범(서양·포어 1)
박재성(동양·중국어 1)
안제민(서학·독일어 1)
전명수(서학·러시아어 1)
허윤숙(동양·이탈어 1)
황인선(서학·러시아어 1)

이상 10명 10월 1일자

우리신문이 한글날을 맞아 전면 가로쓰기로 바꾼 뜻은
온 국민이 더욱 읽기 쉽게 함이요, 일제문화의 잔재를 없애고
한글사랑의 정신을 뿌리내리고자 함이라.

석선신문 중앙일보 10월 9일부터 전면가로쓰기 단행!
깊고 다양한 정보를 더욱 빠르고 쉽게 보십시오.

석선신문 중앙일보 정보의 깊이가 다릅니다
중앙일보

김일성 사후1년, 북한은 지금 ④ 김정일 체제의 성격과 전망

김정일 시대 공식출범 준비완료

통일시대의 구체적 모습담은 마스터플랜 마련해야

김정일체제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식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정일은 경제·군사부문에 폭넓은 지지 기반과 주체사상의 획림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어왔다.
사진은 지난 2월초 해군부대를 찾아가 병사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김정일비서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사진: '말' 지

글싣는 순서
1. 북한의 현 경제상황
2. 북한의 개방 진행과정과 실태
3.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 변화
4. 김정일 체제의 성격과 전망

이 찬 행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이중잣대로 재단하는 남한정부

지난 9월말 어느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 월간조선이 입수했다는 북한 김정일의 육성 녹음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 녹음 테이프를 제0단체나 대학생들이 입수해 집회에서 들려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89년 공안정국, 가깝게는 지난해 김일성 주석 사망 때 몰아닥친 붉은 사냥처럼 아마도 초가을 이땅엔 좌경 용공분자 검거선풍이 휘몰아쳤을 지 모른다.

평양방문도 그렇다. 성격이나 내용은 비슷한데도 고(故)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장로는 병원측의 소견에도 구속됐는데, 안호성 박사는 불구속됐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만인에게 공평해야 할 법이 어찌 이중 잣대로 재단하는 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중잣대로 재는 것은 비단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다. 북한을 바라보거나 보도하는 것도 이중잣대란 것이 있다. 언론은 북한을 통일의 한 당사자로 취급하는 등식에 상품으로도 취급한다. "북한 수재피해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보도를 했을 때 과연이 언론이 국민들에게 통일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여론의 눈치만 보는 정부는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다.

김정일 체제에 대한 언론의 자세

북한 김정일 체제의 동향은 정부에게나 한 국언론에게 좋은 상품이다.

정부에겐 국면 전환용으로 언론에겐 기사 꺼리가 없을 때 특종기사감으로 취급되기 일쑤다. 얼마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의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 등 언론 3단체는 이러한 현 언론의 보도작태에 항의를 하기 위해 '평화적 남북관계의 정착 및 통일에 기여하는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남북보도·제작준칙'을 제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한 예로 지난주에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이 들여 뉴욕 유엔연설을 취소하고 귀국하자, 일제히 국내언론에선 '김정일 권력승계 임박'을 속보로 내보냈다. 김정일 비서의 권력승계 관련 보도횟수는 한달 사이 대략 50회정도에 이르고 있다. 거의 한번에 두세번씩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권력승계에 대한 이러한 언론의 관심은 지난해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부터 계속돼 왔다. 이는 북한식으로 말하면 유훈통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가의 최고통수권자가 공식적으로 공백상태에 있는 경우도 드물다. 북한 '중앙방송'은 지난 1일 "측근들이 추대행사 거행을 여러차례 간청했으나 김정일 동지가 이를 만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을 방문한 문명자씨(유에스·아시안 뉴스 주필)의 인터뷰기사('말'지 95년 4월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일은 권력승계를 늦추고 있을까. 일부, 아니 대부분의 견해들은 "김정일이 반대세력을 제거할 충분한 시간벌기", '아버지의 후광을 확실하게 등에 업기 위한 술책', '김일성 우상화에 이은 또 하나의 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작업 지연', '북한체제의 안정성 결여', '김정일의 건강 악화', '권력구조와 체제 변화 준비작업 중' 등으로 본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우리의 잣대로 북한의 권력구조를 분석하거나 평가하는데서 오는 필연적인 오류다.

김정일 권력승계 지연원인과 시기

김정일이 공식 권력승계를 미루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상심에 젖어있는 국민정서와 함께 이미 모든 권력이 승계가 된 마당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올해부터 최대 명절로 발표(김주석 생존 당시인 93년에 이미 결정한 것으로 김주석이 생존해 있는데 격에 맞지 않다고 보류해 온 것임)하여 4월 축전을 계기로 근 1년만에 상당히 국민적 정서가 호전되어 있다. 그러다가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의 1백년만의 무더기 비로 국민적 분위기는 내려앉았다. 하지만 김정일의 권력승계에서 국민정서는 부차적 요인일 뿐이다. 시기를 택하는 요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

수령관에 의하면 김일성의 사망과 동시에 후계자인 김정일이 수령을 계승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나 당간부들은 김정일이 수령을 승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문제는 공식 승계절차를 늦추고 있는 것인데 쉽게 설명하면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국가주석과 당총비서를 승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현재 국방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총사령관인 김정일이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에 선출된다면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보유했던 권력보다 훨씬 강화된다. 북한 수정헌법(1992. 4. 9)에 의해 대폭 강화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의 수반이며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 주석을 선출하게 되는데,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제89조)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제 90조)

1990년 4월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은 모두 6백87명으로 수정헌법에 따라 1995년 4월로 임기가 만료하게 되어있다. 정기회의는 1년에 1, 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4월 선거가 치뤄지지 않고 제 9기가 지속되고 있다. 90년 제 9기 선거는 예상보다 6개월 빨리 실시됐는데 이를 염두에 둔다면 내년 상반기경에는 제 10기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김정일이 국가주석으로 선출되기 위해선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정기회의를 소집하는 방법과 필요사항으로 소집하는 방법, 그리고 총대의원의 1/3이상의 요청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제 9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보다는 새로 선출될 제 10기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튼튼히 완료된 권력승계

당총비서는 당규약 제 24조에 따라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당중앙위는 6개월에 한차례 이상 소집하는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원에서는 당의 주요문제와 조직문제를 다룬다. 1980년 10월 10-14일 제 6차 당대회가 열린 이후 아직 제 7차 당대회가 열리지 않아 당중앙위는 제 6기를 계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정·군의 역할분담론이 제기되거나 김정일이 3대권력을 한손에 틀어쥐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만일 권력구조를 바꾸려면 현재 당의 지도를 받고 있는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지방행정경제위원회'까지 전부 고쳐야 한다. 즉 '노동당의 유일당'과 '당적 지도'를 과감히 포기함을 의미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음은 김정일체제의 공고성 여부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권력구조의 기반과 지도력의 정도(능력과 자질 및 대중장악력 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의 후계자 부상과정에서 그를 돋보이게 한 것이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와 유일사상 체제의 확립이다. 또 지난 25여년 동안 '수령의 대를 이을' 후계자로서 착실히 권력기반을 다져왔고 지도력을 확보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을 보좌 및 지도하면서 두터운 조직관리 핵심인 최고지도부 인사에서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인사정책을 폈다. 국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북한의 권력구조는 대단히 안정적이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한 이후에는 정치적 숙청이 사라지고 대신 정책부진에 따른 경질이 늘어났다. 특히 80년대 이후에는 고위직 인사도 단순경질에서 보직 순환의 성격으로 변했다는 것이 그를 입증한다. 김정일에 대한 군의 충성도는 상당히 높다.

국내에 한동안 유포된 바 있는 김정일의 건강악화설은 말 그대로 '설'이다. 국내 텔레비전에서의 김정일의 뇌수술 운위는 문제가 있어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추측보도이자 취재원도 없는 보도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김정일이 경제에 대해 무지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를 다녔고 졸업논문도 경제관련이며 일찍부터 북한경제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이론문제부터 개입했고 실물경제에 개입한 것은 1974년 10월 '70일 전투'를 통해서 최초로 적용되어 그 뒤 속도전 개념을 경제에 도입했다. 특히 그는 월간조선 테이프에서도 나타나지만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차이점은 물론 각각의 장단점도 소상히 알고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일성 시대보다 김정일 시대에 개혁개방의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들 한다. 김일성 시대에도 대내외적 어려운 난관이 있었지만 김정일 시대에 외부세력들의 체제위협과 개혁개방 요구가 강한 점이 차이라면 차이이다.

김정일 체제의 향후 과제

이렇게 볼 때, 김정일로의 '수령 승계'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자신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권력이 공백기나 과도체제로 음직이지는 않고 있다. 이미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가 마무리됐고 그의 지도력이 사회 전 분야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령 김정일 시대는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공식적인 법적 절차문제만 남겨놓았을 뿐이다.

김정일이 '사회주의 건설의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92.1.3)에서 "사회주의로의 길은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할 전인미답의 길"이라고 지적했듯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역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전환기는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가져다주는 양면성을 갖는다. 김정일체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와의 연속성·지속성·일관성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더디가도 우리식대로 살지요'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며 한반도 통일시대의 상도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느나라든지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가는 기대감이란 엄청나게 크다. 김정일 시대의 당면과제는 김일성 시대의 그것과는 질과 양에서 확연히게 다르다. 그런 점에서 북한식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는 수령 김정일은 전환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21세기 구상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 2·3년간의 단기적인 경제완충기 설정이나 현재 추진 중인 나진 선봉지구와 두만강 유역 개발 등도 그런 구상의 일환이겠지만 특히 주민들의 욕망이 날로 높아가고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주의의 21세기 구상과 한반도 통일시대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 많은 이들은 '김정일 건강악화설'을 시작으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이다. 단지 김주석 사망으로 인해 상심한 국민적 분위기를 의식해서 공식절차를 미루고 있을 뿐이다. 사진은 김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한 김정일비서의 침통한 모습을 담은 것이다.
사진: '말' 지

제1회 한총련 독후감 공모사업

당신의 손에는
무슨 책이 들려있습니까

무심코 집은 한 권의 책이
세상 보는 눈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지 고민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맞는 21세기
그 희망을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21세기 문화창조
바로 당신
대학인이 선택하는
책의 내일입니다.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기 간:95년 9월 1일 ~ 10월 15일
보낼곳: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학교 중학생회
(제1회 한총련 독후감모집 사업단)/02)940-5381
천리안 SINA99
주 최:한국대학중학생회연합, 전국대학생문학연합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예국대오
한국대학중학생회연합

중국 공인 유학추천기관

중국국가교육위원회 유학생처
인가기관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한중교육협력중심

전 중국명문대학유학(자비)추천

● 단기(6·12주) 언어연수
겨울방학 특강
● 북경대학·복단대학 등 인문사회계
● 중의학 및 이·공·농·의과 등 자연계

전 중국 240개 명문 대학

★ 중국 정부 전액 장학생 추천 (약간명)
★ 중의학 및 이·공·상경계 입학시험 수탁 실시

(02) 3461-4010 (代)

96년도 중견행원 채용공고

1. 응시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자(95년 전역장교 출신자 포함)및 96년도 2월 졸업예정자
· 1968년 1월1일이후 출생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여자는 1971년 1월1일이후 출생자
· 전학년 평균성적이 80점(B학점) 이상인 자

2. 모집학과

인문사회계열	상경, 법정, 어문, 기타 인문사회계열 전학과
이공계열	섬유공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통계, 수학, 전산관련학과
예체능계열	응용미술, 산업디자인관련학과

3. 제출서류
· 입행원서(당행 소정양식)…… 1부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

4. 원서교부 및 접수
· 교부장소 : 취업보도실
· 접수기간 : 1995. 10. 16(월)~10. 21(토) 오전10시~오후6시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장소
-. 본점 6층 인사부(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118번지), (053)756-2001
-. 서울분실(서울 중구 소공동 70번지 삼구빌딩 3층), (02)771-6100

5. 전형방법
· 1차 : 필기시험 - 과목 : 영어
- 일시 : 95. 10. 28(토) 15:00
- 장소 : 상서여자상업고등학교(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소재)
· 2차 : 집단면접 및 인성능력적성검사(1차 합격자에 한함)
· 3차 : 개별면접 및 신체검사(2차 합격자에 한함)

6. 기 타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행 인사부((053)756-2001, 교환2117, 2109, 2108)
또는 서울분실 (02)771-6100로 문의 하시기 바람.

대구은행

□ 학술 바로세우기 - 제2회 종합학술제 준비 어떻게 돼가나

외대인 모두가 함께하는 학술잔치

다양한 분과별 주제 통해 토론문화 확산해야

학회의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전공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제 2회 종합학술제가 오는 10월 말 개최된다. 작년 처음 기획된 학술제는 아직 걸음마단계이다. 이미 작년 제1회 종합학술제를 통해 위상과 나아갈 방향들을 정립하긴 했지만 아직 외대학술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기에는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보에서는 제 2회 종합학술제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학술제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올들어 각 과의 학술행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또 오는 10월말 경에는 이런 개별적 행사가 하나로 모아진 종합학술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학교의 정책적 지원과 학회들의 꾸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다.

외대내의 연구풍토 조성이 시급하다는 고민속에서 종합학술제는 작년 9월 개교 40주년 '외대인의 날' 행사로 떠들썩하던 시기에 진행됐다. 외대학술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3월의 준비위원들은 7월과 9월에 걸쳐 첫 학술제가 기획된 것이다.

제1회 종합학술제의 중심 취지는 '일정한 주제에 대해 함께 준비·연구함으로써 그간 개별적으로 학술행사를 진행하던 과 학회간의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여 침체된 학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세계주의와 지역주의'라는 주제 하에 학생 심포지움과 각종 강연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으나, 여러가지 의의에도 불구, 성과적으로 치러지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첫째, 외대내의 전공학회나 사회과학회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었다. 각 학회가 기본 토대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주제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치음 모집시에는 13개과가 신청했으나 최종참가는 중국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과 3개로 그쳤다. 둘째, 재정적인 지원이 미비했다. 대외 홍보적인 성격이 강한 '외대인의 날' 준비로 모든 관심이 집중됐고 과 학생회 역시 학회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작년 학술제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화(정책·정외 4)양은 "학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시급하다"며 "소모적인 행사보다는 학회에 대한 지원이 일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학술제가 정기적으로 개최돼 학교예산에 정식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주제를 상정하는 것보다는 단대의 특성을 살려 분과별로 나뉘어 진행해야 한다"며 내용과 형식의 다양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올해로 2번째를 맞는 종합학술제는 어떻게 준비돼고 있는지 알아보자.

현재 '성(性)'을 전체주제로 진행중인 학술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오는 26일경부터 열리게 될 영화제 및 사진행사이다.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학술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주제에 대한 영화상영이나 명사강연 등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 약 20개과가 참여하게 될 학생참여마당이다. 이 행사는 제 1회 종합학술제의 수준이 너무 높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되도록 쉬운 주제를 통해 짧은 준비기간에도 많은 과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러나 20개의 단위가 모두 성을 주제로 다루진 않을 것이다. 사범대의 경우 '교육' 전반을, 법대의 경우 국제법적인 정신대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한다.

세째, 기존의 학술행사들이 짜맞춘 연극같다는 지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이다. 토론회는 본주제에 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단위가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난상토론을 펼침으로써 좁더 본주제에 다가서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종합학술제가 정치적 내용을 주로 다루고 그 분야의 전문인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등 전문성을 확보했다면 이번 학술제는 비교적 쉬운 내용이지만 각 학회의 현실에 맞는 공부를 과원들이 직접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외대 학술풍토 조성의 토대가 돼야할 제 2회 종합학술제의 출발이 그리 힘차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회 왼들의 노력의 결실이 하나로 묶여지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그러한 연구결과가 외대인 전체에게 되돌려지는 자리가 필요하기에 이번 학술제가 좁더 풍성해지리라 믿는다.

학술부

학술단신

대학원 총학생회 수요강좌 개최
영화, 문학 등 문화적 내용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 4일(수)부터 오는 11월 22일(수)까지 시청각교육원 210호와 대학원 311호에서 수요 학술 강좌를 개최한다. 전문분야를 벗어나 영화, 문학, 정보, 음악 등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케 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취지이다. 이 행사를 주최한 학술부장 김신규씨는 "강사 섭외 등 어려움도 많았고 강의 또한 알차게 꾸며진만큼 학부생이나 원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4 - 신세대 문학에 대해, 김치수(이화여대), 오후 5시
10/11 - 한국영화의 흐름과 이해, 유지나(영화 평론가)
10/20 - 현대 러시아 문학의 동향,
발렌틴 라스푸틴(러시아 소설가), 오전 10시 30분
10/25 - 시, 테크와 정보문화, 윤은기(정보전략 연구소장), 오후 6시
11/1 - 21세기와 여성의 정치참여, 송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오후 5시
11/8 - 일본어 뿌리속의 한국어, 이영희, 오후 5시
11/15 -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주강현(경희대), 오후 5시
11/22 - 대중음악의 이해·락의 역사를 중심으로,
신현준(한국사회과학연구소), 오후 6시

통역대학원 세미나 개최
초청강연회 등 다양한 내용

통역대학원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토)부터 연구원 세미나와 KEISER교수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통·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실제 경험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네바 통역학교 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 국제회의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KEISER교수의 강연회는 공개강연회와 시범수업으로 나뉘어 진행될 계획이며 교내 CA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14 - 연구원 세미나(통역대학원 610호, 오전 10시)
10/16 - 강연회(통역대학원 610호, 오후 3시)
10/17 - 시범수업(통역대학원 610호, 오전 11시)
10/18 - 공개강연회(대강당, 오후 3시)

교수동정

오한진 교수 출판 기념회
회갑축하와 논문 봉정식 가져

본교 독일어과에 재직중인 경암 오한진 교수의 '회갑 논문집 출판 기념회'가 지난 9월 27일(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만총장과 김용래 전 서울시장 등이 참가해 축하의 말을 전했으며 열마전 출간된 오교수의 논문집 '독일분학과 세계문학'의 봉정식도 있었다.

또한 대표로 참가한 학생들이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화환과 기념품을 증정, 사제간의 정을 느끼게 했다. 오한진 교수는 답사를 통해 외대에서의 재직생활에 대해 회고하고 논문집 발표를 통해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오교수는 독일어과에서 문학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현재 용인캠퍼스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민만식 교수 정년기념 발표회
'외대와 정치학' 관련 연구논문 발표

민만식 교수의 정년기념 발표회가 지난 4일(수)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관련학과 교수 등이 참가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외대와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발표회에서 민교수는 '외대 사회과학의 과거·현재·미래'와 '정치학과 지역연구'라는 소주제에 대해 논문을 발표한 후 참가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교수는 이후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법 개정의 숨은 의도

노동법 개정, 자본논리 앞세운 '개악'

봉 찬 영
〈시설관리노조협의회 위원장〉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노동조건의 악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파견법과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공기업 노조전임자 축소에 관련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계에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달 1일 (주)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사업자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위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백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전체 고용인구의 70%를 상회하는 현상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효력은 사실상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업을 전문으로 하는 파견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필요로 하는 기업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은 뒤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그 기업에 파견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직업을 소개, 알선을 행주는 것이데 문제는 파견기업들이 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착취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은 근로자 공급사업과 중간착취를 엄격히 배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중간착취를 금지한 것은 중간착취가 반사회적 인신매매 행위이기 때문이며, 직업안정법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금지한 것은 근로자 공급사업이 중간착취를 전제로 한 반사회적 기업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사업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 근로자 파견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기업주들은 용역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바꾸는 등 편법을 동원하여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다. 근로자파견법이 도입되어 파견근로가 광범하게 확산되면 기업주들은 정규직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마구잡이 대처하여 이로 인해 정규직·파견직을 불문하고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고용불안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고졸, 전문대졸 출신의 신규 취업자를 상당수가 파견직이 아니면 취업하기 힘든 사태도 야기될 것이며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화되어 노사관계는 극도로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 실질적인 예로 현대건설의 경우 여성노동자들은 3년전부터 거의가 계약직으로 바뀌었다. 여상고를 졸업한 어린 노동자들은 "임금을 똑같이 받고 특별히 정규직 사원과 다를 게 없는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을 하고 한때 지내기도 했으나 계약직은 언제든지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돼 있다. 근로조건만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모멸감·열등감을 조장하고 있는 제도이며 고용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노조의 조직력을 떨어뜨려 노동운동을 아예 토초화하는 제도라는게 노동조합관련자의 한목소리이다.

재정경제원이 추진하는 정부투자기관 노조전임자 감축과 임금지급 제한조치도 심각한 문제다. 방송사의 경우 현재 60여명에 달하는 노조 전임자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듯 정부가 노동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비롯한 자본의 강력한 압력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유연화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제경쟁력 강화를 노동강도의 증대와 인건비의 절감에서 찾고 있다. 또 하나는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건설을 향한 노동계의 조직발전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 선제공격으로 노동법 개정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전경련과 정부는 93년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복수노조금지와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금지, 노동조합의 정치참여금지 등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개선하도록 권유받았고 이들 노동악법의 개폐와 개별적 노사관계법(근로자 파견법, 변형 근로제)의 제정을 맞바꾸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결성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건설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일방적인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전경련은 이번 법제 제정 논의를 통해 최소한 근로자파견법의 합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파견법의 경우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로자 파견법이 합법화되면 현 노조조직의 약화는 불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세계화와 나 ❸

미래창조 · 세계도전

세계에 도전하십시오. 미래를 창조하십시오.

다음 중 나이 25세를 일컫는 말은?

① 而 立
② 不 惑
③ 知 命
④ 耳 順
⑤ 立 志

물론 25세를 따로 일컬었던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은 어떨까요? 도전 그리고 창조—
역사는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도전의 흔적이며
미래는 창의적인 도전만이 빚어낼 수 있는 산물입니다.
2000년대를 불과 5년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
분명 당신은 새로운 세기의 주역입니다.
21세기의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에 도전하십시오. 미래를 창조하십시오.
25세의 당신이, 그리고 당신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업이 지금 해야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화는 찬란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청년과 같은
끊임없는 도전의식으로 기업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화학/통신/무역/건설부문 (주)한화 한화전자정보통신(주) ■화학/에너지부문 한화에너지(주) 한화에너지프리지(주) 한화종합화학(주) 한화-비스프우레탄(주) 한화포리마(주) 한화소재(주) ■기계부문 한화기계(주) 한화 엔에스케이 정밀(주) 한화자동차부품(주)
■금융부문 (주)제일증권 삼희투자금융(주) 한화파이낸스(주) 제일투자자문(주) 제일경제연구소(주) ■유통/레저부문 (주)한화유통 한화역사(주) 태평개발(주) 한국국토개발(주) ■기타 그룹종합연구소 (주)한컴 (주)한화이글스 (주)경향신문사 화교법인 천안북일화원

□ 컴퓨터 통신 문학 살리기

열린 통신망 불어넣을 진보적 정보

정보통신사회가 열리면서 PC통신은 진보적 정보혁명을 꿈꿀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공간이다.
문학계의 새로운 바람은 PC통신문학의 등장이다.
요즈음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퇴마록'과 최근 영화화를 계획하고 있는 '피아노맨'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컴퓨터 통신이 확산되고 대중화되면서 컴퓨터 문학 역시 활기를 띠고 있다.

'퇴마록'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이텔 연재소설란에 연재되어오던 이 소설의 조회수가 6천이 넘어가자 모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판하여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연재됐던 소설 '피아노맨'은 최근 영상화 될 예정이라고 한다.

컴퓨터 통신의 활용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로는 까다로운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컴퓨터 한대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통신을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정적이거나 흥미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이텔에서 데이타베이스 개발부에 있는 문경수씨는 "컴퓨터 통신이 활성화되면서 각 통신산업체에서도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컴퓨터 통신을 통해 연재소설을 생각해낸 것은 사용자들을 위한 특별기획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연재소설을 싣게된 동기를 말한다. 덧붙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10대에서 30대 사이입니다. 이들의 구미에 맞게 내용을 기획하죠. 그러다 보니 흥미와 사건위주의 내용이거나 사랑 이야기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문씨는 상업성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문학계에서는 컴퓨터 통신에 실린 글들이 말장난이나 흥미위주의 글로 '문학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렵다'며 컴퓨터 통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사실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통신방은 항상 이용자에게 열려 있는 것으로 문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글들을 사용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컴퓨터의 열린 공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뉜다.

그 첫번째는 하이텔 문학관에 자신의 글을 싣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말한 '퇴마록'과 '피아노맨' 등은 이곳을 통해 연재되고 있는 소설이다. 이는 하이텔에서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필자를 섭외해 그와 함께 연재될 소설의 내용을 기획하거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갖고 하이텔에 연재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연재소설을 싣는 경우와 같은 방식이다. 이처럼 문학관의 연재소설란에 실리는 소설들은 대부분이 프로작가들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꼭 하이텔과 작가간의 합의에 의한 내용만 실리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원한다면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통신으로 띄울 수 있다. 바로 플라자(Plaza)라는 전자 사서함을 통한 방법이다. 이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알리고 함께 비평하며 좀더 자신의 글실력을 늘려 갈 수 있는 평가의 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번째 방법은 가장 잘 알려진 동호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는 대화나 정보를 주고 받는데 주로 쓰이고 있다.

이성우(사회·무역 2)군은 "통신을 통해 좋은 글들을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아요"라며 "작가 이름을 달고 책을 출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요즘 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컴퓨터의 열린 공간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여러 사람들에게 펼쳐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이옥선 기자

우리말 속 일본말

〈11〉 마호병

'마호'라는 말은 '마법'을 뜻하는 일본어이다. 마호병이란 곧 '마법의 병'이란 뜻으로 오랫동안 보온이 된다는 사실이 신기하여 '마법의 병'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보온병'이란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리말 연구회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창작의 기쁨을 맛볼 하루

경기도 '도예마을'

황규혁
〈서양·스칸디나비아어 3〉

언제부터인지 여행은 인간의 삶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되어 왔다. 여행이 인간의 삶에 주는 일차적 의미는 권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행의 의미는 결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과 동시에 무언가를 새롭게 느끼고 배우는 지적 충만으로 이어진다는데 여행의 큰 미덕이 있는 것이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산과 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 있는 이천 도예마을은 여행의 즐거움과 무언가를 배운다는 만족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곳이다.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를 볼 수 있고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관도 있다. 전통가마 보다 기계식 가마가 많아진 점이 아쉽긴 하지만 단순히 도예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의 매력이다.

길잡이를 하자면 동서울터미날에서 이천행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다시 사기막 골로 가는 시내버스로 15분가량 가면 도예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자! 이제 직접 흙을 만지면서 창작활동에 열중하는 것만 남았다. 어린시절 찰흙 만들기를 떠올려도 좋을 것 같고 영화 '사랑과 영혼'의 한 장면처럼 분위기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성 싶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만드는 것을 도와주시니까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한 두려움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찻잔, 필통, 꽃병 등…. 잘 안되면 재떨이라도 만들면 되니까.

일주일 후에 이곳을 다시 찾아와 자신이 만든 것을 가져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공들여 만든 창작물을 확인해 보고 싶고 생활 속에서 이용해 볼수도 있어 가져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친구나 연인끼리 아니면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창작의 기쁨을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생활시평
적절한 말의 취사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는 옛말이 있다. 이는 말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속담이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말은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상호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강의를 토론과 발표 형식으로 진행할 때 종종 자기 주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하게 된다. 적절한 표현과 논리적 표현이 부족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토론의 논지가 흐려지고 지지부진 해 지거나 심할 경우 감정적으로 흐르기도 한다.

사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사색과 논리적이고 복잡한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대학인들의 모습이 이를 더 부추긴다. 그와 함께 텔레비젼이나 컴퓨터 통신, 대중가요의 빠른 리듬으로 갈수록 우리말은 병들고 오염되고 있다. 비어와 속어, 압축해서 쓰는 말, 적적한 분위기와 흐름을 잡지 못하는 횡설수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표현은 우리말에 담겨있는 주어 즉 사람 중심의 언어관, 능동적인 의미를 흐리게 한다.

자신의 뜻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대중 매체의 영향만이 아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의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을 높여주는 교육보다는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된다.

지성인이 지성인답기 위해, 자기 주장을 명쾌하게 펼칠 수 있는 자신감을 위해 토론문화의 정착과 과학적 사고, 독서습관의 생활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즉흥적이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언어생활에서 벗어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이성과 지성이 아쉽다.

김태형 기자

평수당 明水堂 □ 태국의 음식, 술문화

풍요로운 천혜의 땅
요리 즐기는 미식가의 나라

최창성
〈태국어과 교수〉

'논에는 쌀이 있고, 물에는 물고기가 있도다.'(나이나 미카우 나이남 미빨리)

이 귀절은 태국 최초의 통일왕국 '쑤코타이'의 '람캄행' 왕의 치적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자국의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서 태국의 모든 역사·문화 교과서와 언론매체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이다. 이렇듯 그 비옥한 땅과 풍부한 물과 태양열은 이 나라에 내린 천혜의 선물이다. 태국은 옛부터 세계적인 곡창지대이며 풍부한 열대과일과 향신료가 생산된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이라면 4계절 어느 때라도 먹을 수 있는 담수가 있다. 태국은 또한 단 한번도 외세의 침략을 경험하지 않은 아시아의 유일한 나라이다. 이 나라 국민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전쟁을 모르고 자유와 평화와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하에서 식량난을 걱정해 본 일이 없고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양질의 음식을 개발하여 먹음으로써 도락을 즐기는 이른바 식도락과 미식가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태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교통·통신시설을 증설하는 등의 근대화를 이룩한 현 '랏따나꼬씬' 왕조의 명군으로 알려진 '쭐라롱껀' 대왕과 1972년 10·26학생혁명 당시 군사독재정부의 '타놈' 수상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이름난 미식가들이었고 다른 많은 태국 남성들도 자기가 좋아하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한 두가지의 음식을 조리하여 가족과 함께 먹고, 즐기며 화목을 다지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이점은 분명히 가부장제 하에서 가장의 체면과 권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유교문화와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인간에 있어서 음식은 동물의 먹이와는 달리 건강과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이 연구·개발되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친분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의 사회활동을 하는 한 수단으로도 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태국인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음주 인구도 매우 적은 편이다. 태국인들은 경사스러운 일에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웬만한 대인관계와 정신적 여유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술을 약간씩 마시지만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안정을 해칠 정도로 폭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마도 기후가 더운 영향도 있을 것이다. 태국인들은 음주의 실력을 곧 사회적 능력으로 평가하거나 음주가 남성다움의 척도처럼 인식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멸시한다.

태국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상좌부(上座部) 불교국임으로 불교의 재가 신도들이 수행해야 할 금계(禁戒) 5계 중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율을 태국인들은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다.

각종 선거 때 투표당일에 한해서 술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것이 비록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과소평가할 지 모르지만 깨끗한 선거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 행정부의 의지는 강한 것이다. 그리고 태국은 자기부터 국민들 특히, 지식인이나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들었던 국가적인 불운과 슬픔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사실도 술을 적게 또는 적당히 마시는 풍토로 만들었을 것이다. 태국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일은 극히 드물고 캠퍼스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랬다간, 그 교수는 지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민 주 노 총 창 립 축 하 대 공 연

또 한걸음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칠천만 민중의 미래를 개척할 민주노총 창립에 큰 힘이 됩니다."

연출: 박인배
출연진: 꽃다지, 노찾사, 노래선언, 천지인, 조국과청춘, 서대노협
안치환, 김애영, 김영남, 류금신, 백창우
노동조합노래패(한국통신, 대우자동차, 지하철, 병노련, KBS)
풍물패 터울림, 춤패
특별출연: 김선명 선생님, 정태춘·박은옥(29일)

일시: 1995년 10월 28일(토)/29(일) 17:00시
장소: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문의처: 326-1275/743-5872~3

주최: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후원: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협찬: 월간 말

왕산

	면 류	중 식	석 식	비 고
월(9일)	잔치국수 (₩800)	건새우 아욱국 (₩1,200)	강낭콩 밥 (₩1,500)	10월15일(일) 참치김치찌개
화(10일)	떡만두국 (₩1,000)	닭육개장국 (₩1,200)	홍합살 미역국 (₩1,200)	
수(11일)	칼국수 (₩1,000)	순두부찌개 (₩1,200)	오징어덮밥 (₩1,200)	
목(12일)	카레국수(맑은장국) (₩1,000)	닭도리탕 (₩1,200)	하이라이스 (₩1,200)	
금(13일)	어묵우동 (₩1,000)	조갯살된장국 (₩1,200)	사골배추국(된장) (₩1,200)	
토(14일)		콩나물밥(우채) (₩1,000)		

〈제공: 생활협동조합〉

이문

구분 / 요일	A식단 1배식구	B식단 2배식구	C식단/석식 3배식구
월(9일)	콩나물 우거지국 (₩1,000)	하이라이스 (₩1,000)	참치 김치 찌개 (₩1,300)
화(10일)	오징어 볶음 덮밥 (₩1,300)	생선 커틀렛 (₩1,500)	육 개 장 (₩1,300)
수(11일)	김치 볶음 덮밥 (₩1,300)	순두부 찌개 (₩1,300)	소고기 볶음 덮밥 (₩1,100)
목(12일)	짜장밥 (₩1,300)	두부 된장 찌개 (₩1,300)	카레 라이스 (₩1,300)
금(13일)	비빔밥 (₩1,300)	설렁탕 (₩1,400)	김치 볶음 덮밥 (₩1,300)

〈제공: 총무처 후생과〉

□ '꿈의 복원' '95 세계민속예술제와 이후 과제

화려한 옛 추억 세민제, 현실로 부활

'꿈의 복원' '95세계민속예술제(세민제)가 지난 6일(금)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로써 지난 92년 이후 용인캠퍼스에서 개최한 세계민속예술제전(세민전)과 함께 양 배꼽터에 외대를 상징하고 외대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이 마련된 셈이다.

2천여명의 학생들이 노천극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동·서양어대 어문계열 11개과(중국어과, 베트남어과, 서반아어과, 스칸디나비어과, 네덜란드어과, 러시아어과, 태국어과, 터키어과, 마인어과, 아랍어과, 인도어과) 17개팀의 춤과 한국의 민속춤, 원어노래가 공연됐다. 외대풍물패연합(건)의 개막을 알리는 힘찬 북소리로 복원의 서막이 올랐다. 동양과 서양으로 각각 배낭여행을 떠난 2명의 여행자가 그곳의 춤과 노래, 풍물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2천여명의 참가자도 함께 짧은 세계여행을 다녀 온 것이다. 또 세계 풍물과 두달 동안의 준비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연과 함께 곁들어졌다.

출발지 '한국'을 시작으로 첫 여행지인 중국편에서는 중국어과 원어노래패 '연경'의 쿵푸 시범이 좋은 호응을 받았다. 베트남어과는 이번에 베트남 서민의 민속춤을 배워 무대에 올린 첫 시도를 하기도 했다. 서반아어과 노래패 'NOVIOS'는 라틴 민요의 경쾌함을 살리기 위해 그에 걸맞는 율동과 전통악기 연주로, 러시아어과는 능숙하고 다양한 춤으로 주목을 받았다. 공연 도중 실수가 있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박수와 환호로 격려를 보내 주는 미덕은 외대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으로 노천극장을 달구었다.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95세민제,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역학의 계승과 새롭게 변화된 세민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 이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짧은 준비기간에도 춤패와 원어노래패의 공연을 한 자리에 모아내 이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패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한층 높여준 계기가 됐다. 또 각 지역의 노래와 춤을 직접 해보고 접하므로써 자신의 전공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다시 고민하는 공간이었다.

'95세민제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역시 산재하다. 즉 당시 세민제가 제기회로 막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오류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세민제가 넘어야할 산인 것이다.

첫째, 똑같은 춤과 노래의 되풀이가 아닌 그 지역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이해를 통한 질적도약이다. 용인캠퍼스 세민전은 춤과 노래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의상, 음식, 도서 등의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춤패 노래패 외에 과 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춤과 노래로는 미흡한 그 지역의 문화와 풍속을 보여주기도 했다.

둘째, 비언어계열 나름의 특성을 가진 참여공간의 마련이다.

셋째, 연합체 건설로 흩어져 있는 각패들을 총화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넷째, 현재 서울과 용인이 따로 개최하는 것을 그간 서로의 축적된 고민을 교류해 연대하는 공간의 마련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세민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위해 세민제 준비위의 상설기구화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민제는 과단위에서 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고 준비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각 패들의 나열식 공연이 아닌 매회마다 통일된 주제로 예술적 완성도를 이룰수 있는 기획이 요구된다. 1만 3천 외대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지혜가 모아지는 세민제로 햐루도, 동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세민제로 거듭날 때 질적 발전은 약속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

□ 쿵푸 시범보인 중국어과 '연경'

"내년 위해 무술전수 해야죠"

중국어과의 쿵푸 시범은 노천극장에 모인 외대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중국의 문화와 특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인 '쿵후 시범'에서 이번 세민제를 위한 중국어과의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신입생 모집용 홍보 공연뿐만 보고 화려했던 당시의 세민제를 상상만 했어요. 우리 힘으로 올해 세민제를 복원해서 기뻐요" 온몸으로 쿵후 시범을 한 김정성(동양·중국어 2)군은 "다음 세민제를 위해 후배들에게 무술을 전수해야 할 텐데…. 영 후배들이 비실비실해서"(웃음).

김군은 평소에 중국영화와 무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세민제를 계기로 중국어과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또한 배웠던 해동검도와 태극권, 중국 영화로 눈에 익은 동작을 조화시켜 연습했다고 한다.

중국어과는 중국 전통의상을 보여주는데 애를 먹었다. 남자 의상은 참가자들이 화비를 걷어 마련했다고 한다.

□ 서반아어과 노래패 'NOVIOS'

"템버린 연주, 효성여대에서 배웠죠"

'라틴바', 멕시코 모자, 결쾌한 율동으로 인기를 모은 서반어과 노래패. "라틴 음악의 경쾌한 리듬과 안무로 서반아권의 특색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고광필(원어노래패 패장, 서양·서반어 2)군은 연습 때 보다 못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한다. 매일 수업 끝나고 2시간, 토요일 연습까지 했다고. 라틴 민요 특유의 활기찬 리듬을 살리기 위해 전통악기 연주와 템버린 연주법을 대구 효성여대 학생들에게 배우는 등 노력을 많이 했다.

"우리들의 활동을 검증받고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뚜렷한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죠"라며 세민제가 패인들에게는 힘을 주는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1학년들이 즐겁게 연습했죠. 관심도 많고 의욕이 컸어요. 끝나면 속 시원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섭섭해 하더라구요"라며 웃는다. 예전에는 노래만 불렀는데 이번에는 모두 함께 의견을 모아 안무를 짜고 지휘를 모았던 것이 참 즐거웠다고 한다.

고군은 "학교에서 세민제를 대외 홍보용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라며 "일부 교수님들은 개인적인 일로 부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땐 씁쓸하죠. 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전공을 살리는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연단체 쯤으로 보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고군은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이름이 있는 한 세민제는 외대를 상징하고 외대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행사로 자리잡아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화 단 신

왕산

'95 모현학사 가을 축제 개최

모현학사 가을축제가 지난 6일(금) 7시, 기숙사 학생들의 가요제와 캠프파이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전야제를 첫 출발로 시작됐다.

7일(토)에는 본 행사로 체육대회와 박강성씨 콘서트가 열렸다.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기숙사생들의 단합을 이루고 친구들을 기숙사로 초대하여 함께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되고 있다.

독일어과 가을 축제

지난 4일(수) 노천에서는 독일어과 가을축제가 열렸다.

독일어과 사물놀이패 '민백'의 길놀이로 개막식의 분을 연 이번 행사는 독일 민속학회 '탄젠'의 독일 민속춤 공연과 노래패 '로렐라이'의 원어노래 공연 등 각 학회가 전문성을 살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문승관(서반·독일어 1)군은 "독일 축제는 맥주 축제지만 지금같은 독일어과 학생들과 교수님 모두가 주인되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제4회 동구어대 '폭풍제' 열려

"동구어대 폭풍제는 지난 92년에 동구어대 인들의 소속감을 높이며 서로의 단합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올해에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라는 모토가 첨가되어 더욱 동구어대 학생들의 단합을 중심으로 준비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준비한 동구어대 단대장 이주남(동구·체코어 4)군은 행사의 의의를 말한다.

지난 4일(수) 열린 개막식에는 5개 과가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날 준비된 퀴즈대회는 정치·사회·경제 등 시사적인 문제와 각 학회의 특징을 알아 맞추는 질문 등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그리고 5일(목)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민중가요를 번안하여 부르는 '번안가요제'가 열렸다.

타임반, 커버전시회 열려

지난 4일(수)부터 6일(금)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는 하숙분과 등아리 '타임'반의 타임지 표지전시회가 열렸다. 각각의 표지그림 밑에는 표지설명이 붙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뿐만 아니라 관람하는 학생들에게 회원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전시의 주제를 맡은 타임반 대표 조은일(서학·영어 3)양은 "시사적인 문제를 타임지를 통해 읽으면서 토론했던 내용들을 동아리 회원들만이 아니라 외대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라며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이문

해갈, 가을 전시회 열어

지난 4일(수)부터 6일(금)까지 만화동아리 '해갈'이 가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그린 2개의 극화작품 즉, 반전문제를 다룬 '마지막 비행'과 해외입양을 다룬 '아메리칸 드림' 그 밖의 다양한 일러스트 작품들이 선보였다. 한편 서울여대 '만화방', 왕산 '그림사랑', 서강대 '영상비평' 등의 작품이 초청 전시되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정책·신방 2)군은 "만화가 오락물이 아닌 예술 장르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영화제 개최

'이탈리아 영화제'가 이탈리아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4일(수)부터 6일(금)까지 대강당에서 열렸다.

4일(수)에는 이탈리아의 사회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독일 0년',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란 영화를 선보였다. 또 5일(목)에는 뉴이탈리아 시네마 계열 영화 '정사', '달콤한 인생'을 상영했다.

6일(금)에는 파졸리니 감독의 두 작품 '마태복음' '데카메론'을 통해 정치적·사회적·종교적 문제에 대해 감독 특유의 단순하고 거친 영화기법을 보여줬다.

'취현회' 정기공연 가져

고전기타반 '취현회'는 지난 6일(금) 소강당에서 제1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솔로, 중주, 합주로 진행됐던 예년과 달리 연주회의 중심을 차지하는 합주로 이뤄졌다. 한편 오페라 '카르멘' 모음곡 중 플라밍고 특유의 라스게아도 기타주법으로 연주되는 2/4박자의 쾌활한 행진곡 'Prelude'와 플르트 협주곡을 기타로 연주한 'Suite No. 2 in B miner, BWV 1067'등이 연주됐다.

박성수(서양·독일어 2)군은 "합주를 통해 기타가 하나의 위대한 악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이번 연주회의 의의를 밝혔다.

FBS, 제17회 방송제 개최

교육방송국 FBS는 지난 5일(목) 대강당에서 제17회 방송제를 열었다.

'인권'을 주제로 한 이번 방송제는 대구참사,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동성애, 대학문화 등의 주제를 표현해 한국의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특히 대구참사를 다룬 '죽음을 부르는 야누스 공화국'과 굴업도 핵폐기장 문제를 다룬 '끝나지 않는 노래'는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사건현장을 취재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어떤 사건을 취재할 때 어느 한쪽의 입장만이 아닌 다각적인 면에서 사건을 분석해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 가수 이정열(아프리카어 87)씨를 만나

록 오페라 '개똥이' 맹연습 중

지난 6일(금) 용인캠퍼스 등영제 폐막식 공연에 참석한 가수 이정열(본교 아프리카어 87)씨는 오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릴 김민기의 록 오페라 '개똥이' 준비에 한참이다.

"지금 '개똥이'공연을 연습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시 온겁니다"라는 이정열씨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30여명의 배우들과 함께 맹연습 중이라고 한다.

'아첨이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수 김민기씨의 작사, 작곡, 연출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은 순수 창작물로서 지난 87년 기획되었으나 그간 정치적 상황으로 작업이 중단된 채 묻혀 있었던 작품이다.

인간들이 무심코 바친 쓰레기들로 인해 빌레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쌓이는 가운데 주인공 '개똥이'가 자기 희생으로 이웃을 구하고 어른 반디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담은 이 작품은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악과 록 뮤직을 넘나드는 김민기의 30여곡의 노래와 재즈피아니스트 김광민의 편곡, 소리 지도에 국악인 남궁정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새롭고 젊은 감각을 표출하기 위해 작품 전체를 대사없이 노래로만 구성된 록 오페라 형식을 취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씨는 "말하고자 하는 알맹이를 현 시대 정신에 맞게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대중음악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이제는 민중가요도 학생들만 느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인다.

록 오페라 '개똥이'는 그동안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만 해석돼 온 환경문제를 자연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풀어나감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문화부

외대 황비홍

당당하고 패기있는 남성성을 노래한 중국어과 노래패 '연경'의 공연에 중국 무술 쿵푸를 혼신을 다해 선보이고 있다. TV광고 '자랑'을 연상시켜 폭소를 자아냈다.

멋지게 해야지

무대 오르기전의 담소. 태국어과 춤패가 전통의상을 입고 대기 중이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서로에게 대한 격려로 진정시키고 있다.

알라딘과 쟈스민을 위해

아랍어과 춤패가 아리비아의 민속 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소위 '배꼽춤'으로 인기 높은 아랍춤은 결혼식을 위한 춤으로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다.

절제미

마인어과 춤패가 말레이시아 남녀간의 사교춤을 선보이고 있다. 서양의 격렬함에 비해 정적이고 절제된 동작으로 동양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스타 탄생

러시아어과 춤패 '라스 드바 뜨리' 패원이 정열의 춤 러시아 춤을 공연한 후 친구들의 꽃다발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

□ 정민주 · 이혜정대표 환영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청년학생결의대회

방북대표 일정마치고 귀환

남측대표로 통일행사 참가·평양 방문

올해는 기필코 남과 북이 만나야 한다는 걸의하에 남측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대표로 방북한 정민주 · 이혜정 양이 지난 3일(화)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이날 한총련은 '정민주 · 이혜정대표 환영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청년학생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민주 · 이혜정 대표 환영과 국보법철폐를 위한 청년학생결의대회'가 지난 3일(화) 12시 고대민주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서 정태흥 한총련 의장은 "두대표의 북한 방문은 남과 북의 실질적인 만남을 이룬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남과 북의 만남을 가로막는 것은 정부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증거이다"라며 정부의 사전 구속 방침을 비난했다. 또 한양대 총학생회장 이윤구군이 '두대표의 무사귀환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4시에 독립문역에서 다시 모여 북쪽을 향해 달렸으나 통일로 앞에서 전경들과 대치, 30분간 연좌시위를 한후 해산했으며 5시반 경에는 명동으로 이동하여 선전전을 한후 명동성당에서 정리집회를 가졌다. 정리집회에서 학생들은 77일간 이뤄진 농성단 대표의 얘기를 들었으며 인천시립대 부총학생회장이 두대표의 북한 방문 중 활동을 소개했다.

두대표는 당초 남과 북, 해외가 함께 개최하려고 했던 8 · 15민족공동행사가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뤄지지 못한 남북대학생들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게 됐다.

두 대표는 평양에서 열리고 있던 8 · 15행사에 남측대표로 참석했으며 8월 25일(금)에는 두대표를 환영하는 평양청년학생대회에 참석하여 남쪽 학생들의 통일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백두산과 속섬혁명사적지,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관했으며 조선중앙역사 박물관에 찾아가 벽화를 그려보기도 했다. 또 민족적 상징으로 복원된 단군릉을 참관하였다. 이밖에도 두대표는 평양시내 곳곳을 방문한후 김일성 종합대학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대학을 방문, 한총련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고 비디오를 상영해 2백만 남북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선사했다. 정민주 · 이혜정 양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며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자신들의 방북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10월 3일(화) 단군릉 답사와 두대표 환영을 위해 꾸려진 각지역 대표방북단 40명은 임진각에서 전원 연행되어 구속될 방침이다.

정민주 대표의 글

8월 17일(목)

-평양의 거리는 아주 특색이 있다. 대부분 회색, 흰색과 연한 황색 건물이라 삐까뻔쩍한 색조에 익숙해진 우리의 눈에는 마치 색을 안입힌 것처럼 보인다. 회색및 색조가 대부분 고층건물들(어릴때 배웠던 것과는 달리 전시용이 아니라 모두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이 빽빽한 반면 도시전체가 공원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발길 닿는 곳마다 수풀림과 잔디밭이며 휴식지, 산책로이다. 실제로 시의 80%이상이 녹지 유원지, 고원이다. 평양에 위치한 평양산원은 여성들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봉사를 하는 전문병원으로 유명하다. 원래 이북의 경우 무상치료제가 실현되어 있고 의료사업이 발달돼 있긴 하지만 평양산원은 화장실에까지 비상벨을 설치하는 세심함이나 아이를 낳고 나면 전반적으로 몸이 허약해진다고 해서 종합진단과 치료에 모든 정성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며 다른 곳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곳에 들어서있는 동안은 정말 여성의 세계라는 생각에 퀜스레 호뭇하기까지 했다.

8월 23일(수)

-백두산을 가기전 우리는 북녘 어느 어머니로부터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내가 개인적으로 평소 몹시 부러워해 늘상 후배들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흰저고리, 검정치마를 손수 만들어오신 것이다. 너무 고와 평소에 치마를 싫어하는 혜정이도 선뜻 입었다. 또 함께 온 어린 처녀가 언니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까를 고민하다 만들어왔다는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이란게 그 어린 처녀가 자신의 검지를 베어낸 혈서였다.

'우리 갈길 많고 험난해도 오직 통일의 한길이다'

이혜정대표의 글

8월 27일(일)

-어제 저녁 안내해주시는 북측본부의 사람들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됐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한번 느꼈다. 처음엔 막연히 같은 민족이고 그 이유만으로 노력만 한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에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방문했다. 김규식, 조봉암 선생 등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수고하셨던 애국열사들의 묘소가 마련된 곳이다. 막상 그곳에 가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독립운동을 했던 투사가 아니라도 그간 북녘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공헌했던 사람들 또한 그곳에 안치되어 있었다.

박현숙 기자

KBS 2TV, 삼성에 넘어갈지도

재벌의 방송소유 허가위해 방송법 개정 추진

"동양방송(TBC)의 강제통합은 잘못된 것이다. 가능하면 바로 잡겠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수) 중앙일보 창간 3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80년 전두환 대통령시절 정부의 민영방송통폐합조치로 당시 삼성이 소유하고 있던 동양방송이 KBS 제2 텔레비전으로 통합, 공영화된 것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해 KBS 제2텔레비전을 중앙일보(삼성)에 돌려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삼성은 그 동안 KBS 제2텔레비전의 회수를 지상목표로 삼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왔었다. 이러한 KBS 제2텔레비전의 삼성 불하 문제는 지난 수년간 방송계, 정계에서 크게 논란을 빚어온 것으로 대통령의 개입으로 인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또한 삼성은 전그룹의 조직력을 동원해 문민정부의 탄생을 도왔기에 그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아 KBS 제 2텔레비전의 삼성 불하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실제로 삼성은 문민정부 탄생 이후 약 20년 전 사카린밀수 범죄에 대한 대국민 사죄의 일환으로 국가에 헌납한 한국비료를 되돌려 받았으며 석유화학 산업 진출, 자동차 산업 진출 등 혜택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삼성에 대한 특혜방침은 KBS 제2 텔레비전의 삼성 불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부각시켰다.

이렇게 정부는 공영방송인 KBS 제2텔레비전을 삼성에게 넘겨주는 등 재벌과 신문사의 방송소유에 초점을 맞춘 통합방송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야당 및 각 언론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과 언론사들의 방송참여 위성방송 소유 허가, 통합방송위원회 구성 및 방송위원선임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더욱 용이케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정부의 통합방송법안이 "언론사를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라고 보고 통합방송법 제정 저지와 독자적인 통합방송법안 관철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렇게 KBS 제2텔레비전과 관련된 정부의 속셈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KBS 노조는 KBS 제2텔레비전의 분리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영방송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재벌의 신문사 · 방송소유에 초점을 맞춘 통합방송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KBS 2TV의 삼성최수, 정부의 방송통제 용이 등을 위한 것이이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KBS, MBC, CBS, EBS 노조는 연대하여 10월-11월 사이 '방송단일노조'를 결성하고 방송개혁국민회의와 함께 정부의 방송법제정에 대응할 예정이다.

YMCA, 민언협 등 49개의 시민단체들과 각 방송사 노조로 구성된 방송개혁국민회의의 권영만(MBC 노조 정책실장, 본교 영어과 79학번)씨는 재벌기업과 재벌언론사가 방송을 소유하게되면 "방송이 상업화된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민영방송은 비판보단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도한 시청률 경쟁 등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씨는 "현행 방송법상 모든 방송국은 3년마다 정부에게 '방송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영방송은 계속 방송을 하기 위해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방송산업이 정부의 방침대로 민영화되어 무한 경쟁구도로 접어들게 될 경우 오락, 저질프로의 범람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선진방송산업, 특히 미국방송을 앞다투어 수입하게 됨으로 인해 자칫 미국방송산업에 잠식당할 수도 있다.

방송개혁국민회의는 이를 우려, 방송의 상업화와 재벌의 방송 소유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금은 공보처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방송위원회(방송에 대한 기본 방향이념을 제시하고 중요한 정책을 정함, 입법 · 사법 · 행정부에서 각각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과 권한 강화, 교육방송에 대한 대책 마련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송개혁국민회의는 방송단일노조와 함께 서명운동이나 토론회, 공청회 국회앞 시위 등 정부의 방송법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할 예정이다.

고병권 기자

사회단신

장기수 김선명씨, 조선일보 고소

김선명씨는 조선일보가 지난 8월 17일(목)자 '기자수첩'에서 자신을 '전향을 거부하고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한 골수 공산주의자' '그가 꿈에도 그리는 조국통일은 적화통일이 아닐까'라는 등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양심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법적고발에 앞서 9월 12일(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했으나 조선일보측은 "내부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중재가 성립되지 않았었다.

조선일보는 '공산주의자 사면'이라는 제목을 단 이 문제의 기사에서 "김씨의 출소를 감상적으로 바라보기엔 뭔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한 고려없이 김씨를 석방한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씨는 "모든 생각과 활동을 부정하라고 고문과 폭력으로 강요하는 전향은 인간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향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한 채 죽느냐 아니면 인격과 정신을 버린 채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전향을 강요했던 자들과 똑같은 짓"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금정굴 양민학살 48년만에 진실 밝혀져

6 · 25당시 경기도 고양시 '금정굴 양민학살'의 진상이 반세기만에 그 실체가 벗겨지고 있다. 금정굴 양민학살은 6 · 25 당시 고양사를 점령한 인민군이 우익인사 500명을 학살한데서 기인했다.

이후 9 · 28 서울 수복 후엔 우익진영에서 보복차원으로 월북자 가족은 물론 부역자나 의심가는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이러식으로 약 1천여명이 희생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유해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정부에 의해 곧 좌절되었다.

그러던 93년 9월 유족들은 희생자 위령제를 열고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및 유해발굴작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달 29일, 폐광이었던 금정굴에서 유해 3백여 구를 발굴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금정굴 양민학살의 진상이 밝혀질 전망이다.

공안 담당 경찰 고속 승진

학원 · 노동단체 등에 대한 정보 · 보안을 담당하는 공안 담당 경찰들이 승진시 우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종완(민주당)의원은 경찰청에서 자신에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위와 같이 밝혔다. 올해 8월까지 경찰 특진자 2백20명 가운데 공안 담당 경찰이 50명으로 전체 특진자 가운데 27%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작년 한해 동안 특진자 1백 93명 가운데 공안 담당 경찰이 39명으로 20%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4월부터 6월사이에 시국 관련 구속자가 3백12명이나 되는데 이 기간동안 공안담당 경찰 특진자도 43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종완 국회의원은 "특진을 의식한 경찰관들이 시국사범들을 실적위주로 마구 잡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총기 발사 사건 또 일어나

경찰이 또 다시 총을 쐈다. 지난 4일(수) 서울시 번 3동에서 빈민연대 활동을 하던 한성대 한 학생이 경찰에 옷이 벗겨진 채 구타당하면서 연행되는 것을 보고 항의하던 시민 학생들에게 경찰은 공포 3발을 발사했다.

이와 관련 총기 난사에 대한 빈학연대 학생공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상, 철거지역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7일(토) 시민 학생 5백여명이 모인 서울지역 철거민대회에서 공대위는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날까지 빈민 학생들이 함께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행사가 끝난후 대회 참석자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종묘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세계최장기수로 복역하다 8 · 15특별사면으로 석방된 김선명씨가 자신을 '골수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正道경영·초우량 LG
2002 World Cup Korea
LG
"페인 선생님, 죄송해서 어떡하죠?"

데이비드 페인(1944~) David Pein
영국의 과학자. 영국 Optical Fiber Group의 책임연구원. 주로 광통신, 광섬유, 광전송, 광소자 분야 등에 관한 전문연구로 지금까지 무려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11개의 특허를 획득,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광케이블, 광섬유— 선생님의 명성 드높긴 하지만 죄송해서 어떡하죠? 선생님의 그 명성을 앞서게 되면…
수십 Giga Bit/sec의 초고속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전송하는 광케이블— 내장된 광섬유의 직경은 245㎛, 실리카 글라스의 순도는 99.9999%— 사람 머리카락 보다 가는 이 기기막힌 유리관을 보통사람은 상상도 못했던 일. 그러나, 우리에겐 이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선생님의 업적과 명성 드높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선생님의 그 일 보다 차원높은 21세기 "INFORMATION SUPER HIGHWAY" 기반 조성.
이 분야 세계 TOP에 도전하는 세계 10위 기업. LG전선이 멀티미디어 시대를 가능케 하는 차원높은 광통신 기술로 미래사회의 핵심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LG전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LG트윈타워)
TEL : (02)3773-2344, 2334
FAX : (02)3773-2640
■기초사업/비철금속 가공기술 분야, 절연재료 가공기술 분야
■주력사업/초고압 기술분야, 광통신, 광 응용시스템 분야
ENERGY & INFORMATION SUPER HIGHWAY를 개척하는 - LG전선

5·18관련 특별법안

-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
- 헌법파괴적 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
-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

「법안 성안에 참여한 의원」
김중배(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정동년(5·18광주민중항쟁연합 의장)
안영도 변호사, 박은정 교수, 이석연 변호사,
한인섭 교수, 전영하 변호사, 이남진 변호사

1. 법안의 제안취지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구이다. 공익의 입장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 유지하며 나아가 형벌의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한 나라와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타파하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조타수의 노릇을 한다. 검찰권의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행사없이는 한나라의 사법적 정의가 파탄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파탄에 직면해 있다. 검찰은 언제나 정치권력의 주변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서 자신이 올곧게 지켜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과 자율성을 잃어 왔다. 이번 5·18 광주문제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바라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더이상 검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수천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 땅의 헌정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포기한 것은 검찰 스스로 추상같아야 할 검찰권을 내던진 것에 다름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검찰권의 행사를 완전히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해 버린 지금의 검찰 손안에 남겨둘 수가 없다.

특별검사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수차례 재야법조계 또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진행되어온 특별검사제 논의를 입법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 법안을 입법청원하게 되었다.

2. 법안의 주요골자

가.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대상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대통령등 고위관리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퇴직후에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담당자가 교체된 다음에라도 제대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등이 가능하도록 함.

나. 특별검사임명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회의 자체적인 판단 외에도 법원에서 재판중 정치권력의 중대한 부정과 비리가 발견되어 청구해 온 때 및 일반국민 5만명 이상이 연서로써 청구해 온 때를 예정하고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강제수사에 제약이 있어 조직적인 권력비리를 파헤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직접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일반국민 5만명 이상이 서명하여 특별검사임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시민소추가 가능한 길을 열게 됨.

다. 특별검사에 대한 직무상의 지휘감독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주고 그 외에는 일체의 외부적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특별검사가 새로운 부분 또는 대상에 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전횡을 방지함.

라.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에 보조자를 파견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및 이들을 지휘 감독하고 교체를 요구하며 나아가 직접 보조자를 채용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 임명할 권리를 보장함. 나아가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면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 사실조회등의 협력요청할 권리를 부여함.

마. 특별검사를 공무원으로 보게 함으로써 특별검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 함. 특별검사를 특정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엄격히 신분보장을 함

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상의 지휘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한편 특별검사 임명청구과정에서의 남용을 막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처벌함.

사. 이법의 시행은 공포시로부터 하면서도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검사임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5·18광주사건의 경우 이 법만 빨리 통과된다면 특별검사에 의한 기소가 가능하게 하도록 함.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국민위원회는 지난 22일(금) 28만명의 연서로 특별법안을 청원했다. 또한 전국서명교수대표자모임도 지난 8월24일(목)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등에 관한 법률'과 '헌법파괴적 범죄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할 때 특검제 당연
내란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헌법에 위배

제2장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본법의 적용대상)① 특별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에 관련하여 임명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2. 행정각부의 장관및 차관
3. 각 처의 청장과 감사원장, 국가안전기획부장
4.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5. 법관, 검사
6. 위의 직위에 있었던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②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재직기간동안 대통령은 소추당하지는 아니 하나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

③ 해당자들에 대한 당해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특별검사 임명하는 경우) 특별검사는 제3조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명된다.

1. 국회가 스스로 검찰에 의하여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발의로
2. 재판중 발견한 중대한 범죄를 당해 재판부가 관할 법원장을 통해 검찰총장에 수사를 촉구하여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국회에 통보해 온 때
3. 국민 5만명 이상이 일정한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특별검사 임명을 연서로서 청구해 올 때

제 8조(특별검사의 임명절차)

① 국회는 위 제4조 제①항의 각 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검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출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를 5인 이내에 추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15일 이내에 후보자명단을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5인 가운데서 1명을 선출한다.

⑤ 특별검사의 선출은 국회법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로 한다.

제3장 특별검사의 권한과 의무

제9조(특별검사의 책임) 특별검사는 국회의 법사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수사와 처분의 경과에 관하여 해당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서면또는 구두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누구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한 해임을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특별검사에 대한 감독)

①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압력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특별검사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감독은 국회법사위원회가 행한다.

③ 국회 법사위원회가 전 항에 따른 감독을 할 때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제14조(국가기관의 협조의무)

① 특별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는 범죄에 관하여 수사상 필요한 경우는 다른 국가기관에 사실조회, 문서송부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검사의 신분보장

제17조(공무원 신분)

① 특별검사는 국회의 선출 결의후 국회의장 앞에서 공정한 직무집행을 선서한 때로부터 국회의 해임결의가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선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령에 의하여 공무로 증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제5장 벌 칙

제21조(특별검사의 수사방해죄 등)

① 특별검사의 지휘에 불응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의 지원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장 공소시효등

제23조(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 법의 시행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24조(공소시효의 정지)

① 본법 제3조의 자가 그 재직 이전 재직 중에 범한 범죄에 관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은 형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본법 제3조에 규정한 직위를 순차로 역임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헌법파괴적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

1.제안이유

공소시효 제도는 소추권의 불행사로 인한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것, 즉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하여 사후입법으로써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연장한다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다. 공소시효 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은 피의자의 이익, 나아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주의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이다.

그런데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범죄나 헌법의 기본정신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공소시효제도의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의 파괴를 용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그러한 범죄행위의 시도를 고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그역시 법체계상으로 보면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경우에 비추어 보면 공소시효제도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헌법규정이나 헌법의 기본적 정신의 파괴라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까지 이 제도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헌법체계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소시효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 결코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적 정의의 기본적인 요청에 앞설수 없는 것임은, 특정 법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자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의 입법례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2.법제정의 목적

이 법은 헌법 또는 헌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

공소시효의 적용이 애초부터 배제되는 범죄로서 헌법질서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범죄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를 열거한다. 헌법파괴적 범죄로서는 최소한 형법상의 내란및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 및 이적의 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범죄로서는 고문에 해당하는 형법 제125조의 직무상폭행 및 가혹행위의 죄, 그리고 국제인권법상의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형법 제250조 이하의 살인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법의 적용범위

범죄행위 당시부터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

1.광주민주화운동관련 특별위원회의 설치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학 교수중에서 대통령이 5인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2.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그 결과의 공개

특별위원회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과 과정, 그 진압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활동을 종료하는 즉시 그 결과를 관보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3.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범죄자에 대한 고발

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며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4.법칙의 규정

특별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명령이나 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둔다.

나 스스로, 우리부터 먼저—
상투(?)적인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젊은 생각, 앞선 기술로 항상 새롭게 변신하는 기업 -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효성인들의 다짐입니다.

상투는 개화기까지 유교문화를 지키고 새로운 물결을 거부하는 상징이었지만, 결국 남의 손에 의해 잘려진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치열한 국제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효성은 우리산업의 기반을 다지며, 사고의 상투처럼 남아있는 모든 상투적인 생각을 스스로 남보다 먼저 버리고 젊은 생각, 새로운 기술로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효성그룹
● 효성물산 ● 동양나이론 ● 동양폴리에스터 ● 동양엠콘 ● 효성중공업
● 효성건설 ● 효성에버라 ● 효성ABB ● 효성바스프 ● 효성B&H
●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 효성데이타시스템 ● 효성드라이비트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동광화성 ● 한국타이어 ● 한국전지
● 대전피혁 ● 동성 ● 대성 ● 효성금속 ● 효성기계 ● 효성ASC

외 대 와 나

외대발전을 위한 세가지 제언

탁 석 산
〈본교 철학과 강사〉

나는 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어문계열 학과에서 졸업논문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내가 영어과를 졸업할 당시에는, 졸업논문을 쓰지않고 단순히 졸업시험을 치르는 것을 나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후에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내 자신이 글을 전혀 쓰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 나름대로는 학부에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의 놀라움은 작은 충격이었다. 나는 그 주요한 원인이 어문계열의 졸업사정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한 학사라면 학술논문의 형식을 갖춘 긴 글을 적어도 한 편 이상은 써 보아야 한다. 그저 단어를 외우고 산만하고 짧은 리포트만을 써도 졸업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그 어떤 대학도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식인을 양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도대체 학사가 논문 한 편도 써보지 않고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현재와 같은 졸업사정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외대는 특히 어문계열의 대학이 아니고 외국어학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둘째, 토익이나 토플을 졸업과목으로 정해야 한다.

어문계열을 졸업한 사람이 자신의 전공 언어로 얼마나 취직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자신있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외대가 졸업의 필수요건으로 졸업논문과 함께 토플이나 토익의 일정점수 이상 취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국제화시대에 영어는 필수이다. 그렇다면 외국어교육에 장점이 있다는 외대는 토플이나 토익을 정식 졸업요건으로 정하여 외대졸업자의 영어실력을 사회에 공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즉 외대를 졸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어도 영어 하나는 확실하게 한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하려 하지만 막상 영어 잘하는 사람, 특히 실용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토익이나 토플을 통과한 사람만을 사회로 내보낼 때 외대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세째, 전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해야 한다.

3, 4학년의 리포트가 자필 원고라면 이상한 일 아닌가? 지금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대학생이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써서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외대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한 증거이다. 리포트 과제에 대해 스스로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편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학교 학생이 독서감상문을 제출하듯이 리포트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 외대의 현실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런 리포트가 학생들에 의해 아무런 거리낌없이 제출되고 또한 교수들에 의해 아무런 제재없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다. 어차피 컴퓨터는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그리고 그 기능성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다른 대학이 하는 것처럼 우리 외대도 신입생에게 노트북 구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대량구입과 장기간의 안정된 구매를 꾀한다면 노트북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가격이 부담이 된다면 학교 보증하에 장기 할부구매를 하거나 매학기 등록금에 일정액을 반영하면 될 것이다. PC통신을 통해 언제나 교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생길 때 학생과 교수간 대화단절은 사라지고 정감있는 새로운 외대가 될 것이다.

□ 제5차 교육과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②

개정은 돼야 하는데…

단대별 자율화 통한 특성화 요구돼

지역학, 경쟁력 갖춰야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개정안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구성원 의견수렴이 절실하다.

본교 제5차 교육과정개정안(개정안)은 △본교 교육이념을 실현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국내의 대학간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야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동기를 형성하게 한다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반영해야 한다 등의 기본전제 아래 교육과정개정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을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5·31교육개혁안의 '경쟁지상주의·수월성의 원리'와 동일한 '비교우위론', 소수 교수들에 의해 작성되고 만들어졌다는 한계 등이 존재한다.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해야할 본교에 있어 개정안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세계화는 곧 자신의 고유한 장점과 특성을 최대한 계발하여 개성을 부각시키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민족적 특성 찾기'이다. '민족의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없으며,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장이 돼야한다. 교양중심 다전공제로 '보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의 보충 내지는 극복을 위한 열린교육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세계화 추세에서 외대가 가장 외대다울 수 있는 특색은 지역학이다. 지역학 전문대학으로의 환골탈태도 추진돼야 한다.

열린 교육·평생교육 추진해야

현재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은 대학에서 배출한 졸업생들을 기업에서 재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써먹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대학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현실에 뒤떨어지는 교육이 그 원인이다. 제대로 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선 제대로 된 대학교육이 실현돼야 한다. 또한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교육의 장으로 대학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 '열린 교육'을 봤을 때 현행 6년인 졸업연한제는 무의미해진다. 4년내 졸업하든 6년만에 졸업하든 그다지 별 차이가 없다. 졸업연한제를 철폐하고 학기당 학점 취득 폭을 대폭 낮춰야 한다. 6-24학점까지 취득 폭을 학생들이 결정하도록 해 밀도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현재 4학년에만 축소적용되고 있는 학점당 등록금 납부제를 전학년에 적용해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전일제 수업을 실시하여 개정안에서 밝힌 주당 55-60시간보다 더 늘려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강의를 듣고 나머지 시간에 자아계발 등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도록 해야한다.

학사제적제도 또한 철폐돼야 한다. 열린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5·31교육개혁안만 하더라도 방과 후 근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대학이 재교육하길 바라고 있다. 본교의 어학연수원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 예가 삼성의 직원들에게 어학연수를 시켜주는 산학협동이다.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재교육'의 명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직접적인 교육대상인 학생들의 학업 기회를 '성적부진'이라는 이유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졸업이수학점이 완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는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양과목은 '40% C+이하 평정'이 아닌 이수여부만 판단해도 족하다. 교양을 누가 더 많이 쌓았느냐는 문제는 본인 스스로의 자기계발에 좌우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폭넓은 다양성이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운영의 묘 살려야

일간지에 어느 대학 단과대학 명의의 신입생 모집광고가 실린 적이 있었다. 학교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부분의 대학과는 달리 단과대학 차원에서 신입생을 모집했던 것이다.

지역학 도입을 위한 과도기적 체제로 단과대학별 자율화가 추진돼야 한다. 계열별 시험으로 학과별로 모집하고 학부를 단과대 내에 운영하게 하는 등 신입생 선발에서 재정권까지 자치화를 이뤄야 한다. 현재 중앙본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학사 행정·재정 인사 등 운영전반을 단과대 중심으로 이동해 단과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중앙본부는 거중 조정 및 통합 역할만 담당하면 종합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과대학별로 전문화 특성화 세분화 다양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특수목적대 성격의 단과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1·2학년 전공은 40명을 단위로 반을 편성하고 심화학습이 요구되는 3·4학년에는 20명을 단위로 반을 편성해야 한다.

외대 지역학, 경쟁력 있는가

'국제통상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외교 전문대학원' 설립의 취지가 본교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은 기본 전제이다. 미국의 요구대로만 타결된 한·미 자동차 협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통상전문가들은 외국어 능력은 있을지 모르나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관점은 부재하다. 국책대학으로 선정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민족주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이 본교에는 더욱 요구된다.

영어회화·영문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있는 영어영문학과, 영미 정치문화·미국경제 등을 전공한 교수들이 따로 있는 미국학과로 어학과와 지역학과를 분리한 계명대는 79년부터 지역학을 도입해 왔다. 15년 전부터 지역학과 어학을 동시에 가르쳐 왔던 계명대와 비교해 과연 본교는 지역학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국내외 대학간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게 한다'라는 개정안의 기본 전제가 무색할 정도다. 또한 계명대는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외국학대학에 무역학과를 통합해 국제학통상대학을 새로 설립했다. 96년부터 신입생을 받게되는 국제학통상대학은 '언어구사능력과 지역학, 그리고 통상능력을 두루 겸비한 인재를 키워내는 현실성 있는 교육'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통상외교 전문 대학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지역학에서 외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다시 한번 곱씹게 하는 사실이다.

계명대의 사례가 본교가 지향해야 할 모델은 아닐지라도 지역학 도입을 위해 사회과학을 전공한 신규교수를 대폭 충원하고 커리큘럼을 전면개정한 사실은 본교에 시사하는 바 크다.

대안마련을 위한 과제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무관심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참여파'까지 다양한 반응의 저변에서 흐르는 공통분모가 있다. "개정은 돼야한다"라는 것이다. 개혁과 변화의 요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외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개정안이 밝힌 '학습동기 유발'이라는 전제와도 상통한다. 토론회나 공청회, 과학적인 설문조사, 과 단위의 교육과정개편 소모임 구성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곽근영 기자

간 큰 정부

○…정부가 또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데….

고양시 금정굴 양민학살의 실체가 베일을 벗고 있는데, 정부나는 몰라라.

아이구, 이에 크로니클자 눈에 핏발부터 서네. 거짓된 일에는 앞장서면서 진실된 일에는 계속 도망가는 우리 정부씨. 요즘 사회에 간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한다던데, 우리 정부씨도 간이 큰가? 만약 그런식으로 계속 나가면 민초들의 분노로 바늘을 만들어 간을 뻥 터뜨려 버릴테니까. 〈병〉

○…오늘 하루도 두려운 왕산 뚜벅이들….

요즘 왕산골에 과속 운전자들이 많다는데, 그 때문에 도로 여기저기에는 높다란 과속 방지턱까지 놓여있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용감한(?) 운전자들은 쌩쌩 달리고, 그러다 며칠전 왕산골에선 큰 사고까지 생겼다는데….

이러다가 학내에 신호등부터 교통경찰까지 생기는 건 아닌지. 〈정〉

크로니클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는데, 누구는 주어온 자식인감!

대학당국, 자연대는 공대로 분리시켜 주면서 동구어대는 8년간이나 분리를 미뤄 편협한 애정(?)을 보여주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자식간의 대화까지 기피하고 있는데….

아무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이렇듯 주어온 자식취급하면 더이상의 혈연관계는 지속될 수 없음을 명심하시압! 〈노〉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민중의 총부리(?) 역할을 한다는 검찰이 학살자들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더니 이제는 국회 광주청문회 위증사건고발과 관련 민자당이 검찰의 사건수사에 반대하자, 5·18위증인들을 수사 않기로 했다는데….

검찰!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형〉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비둘기칠판

왕산골

□ 알립니다

· 에스페란토에서 알립니다. 제27차 에스페란토 대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것은 학생회관 408호로 연락주세요.
때 : 10월 28일(토), 29(일)
곳 : 원광대
〈에스페란토〉

· 볼링부 스머프는 항상 목요일 3시 30분에 모입니다.
스머프 회원들 꼭 모입시다.
〈스머프〉

· 앨범 추가 촬영을 합니다.
기간 : 10월 11일(수), 12일(목) 2시
곳 : 교양관 앞
화사모 촬영은 741-1176 8로 연락해 주세요.
〈졸업준비위원회〉

· 마침내 JOY가 모입니다.
때 : 매주 금요일 5시 30분
곳 : 학생회관 4층 한사랑
〈한사랑〉

· 부끄러운 문화유산 기록전
때: 10월 9일(월)-12일(목)
곳 : 학생회관 전시실
• 전시기간 중 신입회원도 모집합니다.
〈외대기록문학회〉

□ 수고했습니다

· 왕산 동연제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동아리 연합회 성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산 비둘기〉

이문벌

□ 찾습니다

· 9월 11일(월) 교양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남색 가죽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012-829-5588, 인문대 언어학과사무실(4268)

□ 알립니다

· 서반아어과 1학년 여학우들께 알립니다. 29일(금) 동맹휴업으로 치르지 못한 체육 시험은 12월 8일(금) 1교시에 실시합니다.
〈서반아어과〉

· 문화비평모임 미네르바가 제1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주제 : 미셸푸코의 삶과 철학
때 : 10월 10일(화) 늦은 6시
곳 : 대학원 104호
후원 : 외대 졸업준비위원회, 사범대 학생회 그외 외대 학술에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학우들
〈문화비평 모임 미네르바〉

· The Argus가 제56기 수습기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10월 12일(목)까지 접수하세요.
연락처 : 961-4150(이문), 30-4113(왕산)
이문 : 961-4150
왕산 : 30-4113
〈The Argus〉

· 외대 학군단에서는 학사사관, 군장학생, 일반병무에 대하여 병무특강을 실시합니다. 병역 미필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때 : 10월 10일(화) 늦은 3시
곳 : 학군단 자료실
강사 : 학군단 행정과장
〈학군단〉

· '현실속의 자리매김'
영화 〈낮은 목소리〉 상영
때 : 10월 11일(수) 늦은 3시와 5시
곳 : 대강당
변영주 감독과의 대화
때 : 10월 11일(수) 늦은 5시 상영후
곳 : 대강당
〈여학생 위원회〉

□ 수고하셨습니다

· 가을농활을 힘들게 마친 중국어과, 베트남어과, 러시아어과,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문 7천 학우〉

□ 축하합니다

· 성산고 2회 김기훈 동문의 공인회계사(CPA) 합격을 축하합니다.
〈성산고 동문회〉

· 10월 8일(일)에 생일을 맞은 손주홍 학생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인도어과 학생일동〉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왕산 학생기자실 2층 (0335)30-4112

학생증 ID카드화 시작돼

소속 교학과에서 16일부터

내년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전면실시에 따른 학생증의 ID 카드화 전환에 따라 오는 16일(월)부터 31일(화)까지 학부재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소속 교학과에서 신청업무에 들어간다.

학생증, 도서대출증, 현금카드, 직불카드를 겸하게 될 ID카드는 내년 3월 도서관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발급되더라도 도서 대출·반납 업무가 불가능해 현재의 학생증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상품구입을 바로할수 있는 직불카드 기능은 학교앞 상점에 가맹점이 설치되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울캠퍼스 학생처 직원 신승철씨는 "열린총장실을 통한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사항"이라며 "내년부터는 완전한 학생증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학생증의 ID카드화 배경과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도서관 카드화에 따라 졸업생의 도서관 이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제일은행과 동문카드 발급을 논의 중이며 이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ID카드 견본〉

외발추, 동문기업소개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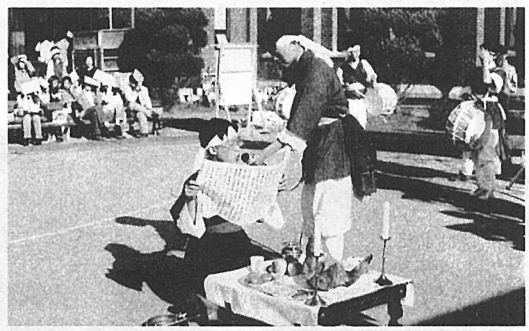
동문기업 현황, 취업정보 제공

서울캠퍼스 외대발전추진위원회(외발추)는 지난 4일(수) 두달간의 준비기간 끝에 동문기업현황과 취업정보를 제공할 동문기업소개서 제 3권을 발간했다.

크라운제과, 문화연필 등 54개 동문기업을 대상으로 △연혁 및 소개 △매출액 △주력업종 △근무조건 △우대사항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소개책자를 준비한 외발추 위원장 이종국(서양·영어 3)군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동문연대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동문의 사회진출현황을 알려내고 취업준비생에게는 가장 유익한 취업정보가 될 것이다"라며 발간의의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동문기업 소개형식의 책자를 매년 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수) 2천5백이 준비하고 6천의대인이 함께하는 동연제가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통일과 5·18 학살자 처벌, 학교발전을 기원하는 솟대제가 열렸다. 정유정 기자

용인, '동문 모교방문의 날'

동문들과의 연대 돈독히

졸업선배들과의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용인캠퍼스 중국어과를 비롯한 각 학과 중심의 모교방문의 날이 활발히 진행돼고 있다.

중국어과

용인캠퍼스 중국어과 모교방문의 날(Home Coming Day)이 오는 29일(일) 오전 10시 학생회관에서 열린다. 이날은 졸업생과의 체육대회와 다과회, 재학생들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와 관련 장근석(2)군은 "외대 중국어과라는 하나의 인연으로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과 만나게 되어 기쁘다"라며 "많은 선배들에게 연락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어과

용인캠퍼스 일본어과 제1회 동문회가 지난 30일(토) 예술의 전당 회의장에서 열렸다.

교수 9명, 졸업생 1백60명, 재학생 1백여명의 참석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원어노래패와 풍물패 공연, 학회소개, 갖가지 게임 등 다양한 순서가 마련됐다.

과회장 김종욱(3)군은 "이런 자리가 지속돼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이 언제나 이어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용인, 가을농활 여주로 떠날 예정

서울, 옥구에서 돌아와

'북한 동포들에게 1천원의 성금을, 남한 농민들에게 땀방울을 주자'라는 목적아래 용인캠퍼스 가을농활이 오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경기도 여주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농활은 경기동부지역·여주군 농학연대사업 추진위원회와 함께 추진된다.

농활대장 이주남(동구·체코어 4)군은 "북한수해 지원을 위해 대중적인 모금사업을 벌이겠다"라며 "농활이 학생회 마지막 대중기획사업이니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캠퍼스는 지난 9월 30일(토)부터 3일(화)까지 전북 군산옥구에서 가을농활을 수행했다. 옥구일대 12개마을 2백여명의 농활대원이 참가해 농활을 통한 농민유대를 꾀했다.

첫날(30일) 군산대에서 농활교양작업을 벌이고 이튿날 각 마을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을 작업에 쏟았다. 농활에 참가한 총학생회장 하용갑(정책·행정 4)군은 "짧은 일정이 분반활동을 하기엔 미흡한 시간이었지만 여름에 이어 지속적으로 한 마을을 책임지는 모습이 좋았다"라며 농활 평가를 했다. 세민제, 학술제로 농활을 가지 못한 많은 과·단대는 중간고사 이후 개별적으로 농활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놀 창립 11주년 행사 개최

'술과 함께한 민놀' 슬라이드 상영

서울캠퍼스 풍물패 동아리 민속악놀이반(민놀)은 지난 7일(토) 창립 11주년 기념행사를 민놀을 거쳐간 선배 30여명과 함께 했다.

선배동문을 초청한 흠커밍 데이 행사으로 치뤄진 창립제는 간단한 식사와 길놀이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술과 함께한 민놀'이란 슬라이드를 상영해 민놀에 전해져 내려오는 야사를 연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민놀 패장 조정현(동양·중국어 3)양은 "11주년이 되는 민놀의 역사를 자축하며 선배와 후배가 오랜만에 만나 풍물을 치며 즐기는 자리다"라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지난 84년에 창립한 민놀을 현재 93학번 이하 1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언협,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 열어

새내기 언론학교·정견토론회 계획

서울·용인캠퍼스 5개 언론사(학보사, 서울·용인 방송국, 교지, 디·이커스(The Argus))간의 친목을 다지는 언론협의회(언협)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가 지난 8일(일) 용인캠퍼스에서 치뤄졌다. 각 사별 대항 피구, 농구 등의 체육대회에 이어 왕산 밤마기 대회가 진행됐으며 연이어 오후 4시에 제7대 언협총회가 열렸다.

언협 상임의장 정성엽(동학·아탑어 4)군은 "언협 일꾼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익히고 앞으로의 언협 강화에 바탕이 되는 자리였다"라며 행사 소감을 밝혔고 많은 언협 집행부가 꾸려졌고, 어느 때보다도 탄탄한 언협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후 언협 일정은 △새내기 언론학교 △각과·편집부 대상 편집 실무학교 △정견토론회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노천지하 언협실 (전화:961-4605)로 하면 된다.

대학단신

용 인

안총장 취업특강 열릴 예정

안병만총장 취업특강이 오는 10일(화) 2시 30분 용인캠퍼스 신강의동 207호에서 졸업준비위원회(졸준위)의 주최로 열린다.

이 행사를 준비한 인문대 졸준위위원장 김종원(언어 4)군은 "본격적인 취업철에 맞춘 총장의 취업특강을 통해 용인캠퍼스 취업난의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개최의의를 밝혔다. "또한 도움이 되는 자리이니 만큼 많은 학생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학생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인문대 체육대회 개최

5백 인문인을 하나로 묶어낼 인문대 체육대회가 오는 10일(화) 3시 소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날에는 농구·족구·발야구·짝피구 등의 종목이 치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문대 학생회장 오상우(사학 4)군은 "이번 체육대회는 앞으로 있을 애인제를 잘 치뤄내기 위한 단합의 자리다"라고 말했다.

선봉대, 이인영씨 강연회 준비중

용인캠퍼스 민족화해 선봉대는 오는 12일(목) 87년 이후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정치조직 건설 을 주제로 이인영(제1기 전대협 의장)씨의 강연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번달 말에는 흔들리는 사회, 새로운 시대정신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방철기(동구·루마니아 4)군은 "현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개최의의를 밝혔다.

서 울

이태리어과 체육대회 열려

이태리어과 학생들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기위한 이태리어과 체육대회와 가요제가 지난 7일(토) 대운동장과 대강당에서 각각 진행됐다.

운동장에서 열린 체육대회는 남자축구, 여자 고무줄 등을 종목으로 하여 열렸고 가요제는 학부생 대학원생 17개팀이 참가해 대강당에서 민중가요를 비롯한 다양한 곡들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태리어과 과회장 서영창(4)군은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참여가 부족해 행사가 많이 축소됐다"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교외 체육수업 장소 바뀌어

교외 체육수업 종목중 성동백화점에서 치뤄지는 볼링과 수영이 지난 9월 30일(토)부터 백화점 내부사정으로 인해 장소가 변경됐다. 성동백화점측은 "백화점 4층 보수공사를 하던 중 아래층의 벽에 금이 가 붕괴위험이 있다"라며 자체 폐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당분간 볼링수업은 노원전철역 앞의 동방파워트 볼링장, 수영수업은 강변역 맞은편의 현대수영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체육 기자재담당 한 직원은"바뀐 장소를 찾아 가기가 불편한 학생은 교내 체육종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동안의 출석기록도 함께 옮겨 주겠다"라며 장소변경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통역대학원 설명회 개최

통역대학원이 오는 13일(금) 대학원 105호에서 통역대학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본교 대학원 출신 국제통역사 두명을 초청, 96년 통역대학원 입시전형과 졸업후 사회진출 전망 등 통역대학원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역대학원 교학과 사무주임 유재화씨는"통역대학원 대부분의 교수들이 본교 출신이 많아 본교 학생들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점 등을 가졌다"라며 그렇지만"본교 학생들이 타대학 학생들보다 통역대학원에 대해 더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밝혔다.

실천사랑, 체육대회 열어

참 삶을 위하여 행하는 모임, 서울캠퍼스 연합봉사동아리 실천사랑은 지난 7일(토) 대운동장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치뤘다. 짝피구, 농구 등의 운동경기와 실천사랑가 부르기 등의 각종행사가 함께 열렸다.

행사를 준비한 실천사랑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사람

□ 부당 해고당한 본교 여직원 김은주양을 만나

"모든 여직원의 이름으로 싸울겁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에게 날라온 것은 한장의 해고통지서였습니다"

지난 6월 해고당해 넉달동안이나 권리찾기 싸움을 하고 있는 용인캠퍼스 노동조합 사무보조원 김은주양(25세)의 말이다.

"저 혼자 직장히 타협하고 끝나면 조용히 해결되겠죠. 그러나 아직도 7명의 사무보조원과 40여명의 상근사환은 이 울타리 안에 갖혀있다는 사실에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납녀고용평등의 달 10월, 그러나 아직도 잔존해 있는 '정년 30, 결혼하면 자동퇴직'이란 잘못된 규정으로 나머지 직원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부당해고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동안 김양은 학교이미지를 위해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대화로써 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복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상 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들고 지난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죠. 물론 부당해고임을 법이 밝혔는데도. 대학당국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며 앞으로도 힘겨울 싸움에 각오를 단단히 한다.

해고된 이후에도 계속 용인캠퍼스로 출근하며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그녀는 "해고전엔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의면할 때 가장 힘이 듭니다. 그래도 다독거려주는 사람이 많아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며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말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수) 열린총장실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총장님은 저에게 한번도 질문기회를 주지 않으시더군요"라며 학교의 무성의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부당해고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김양의 모습에서 남녀차별이 없고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해주는 대학, 그런 의대의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

김재경 기자

델라웨어대학교 동계 영어연수 안내

1.연수조건
- 연수장소: University of Delaware(미국 동부 소재)
- 연수기간: 1996. 1. 6 ~ 2. 18(6주간)
- 수업시간: 주당 24~26시간(주말제외)
- 반 편 성: 분반시험 성적에 따라 편성

2.소요경비
- 총 예상경비: USD4,655
- 경비내역: 수업료(교재대 및 문화여행경비 포함), 기숙사비, 의료보험료 수속관리비(여권, 비자 발급 관련 비용) 항공료및관광비용(미국서부지역 및 하와이)

3.연수대상자 자격 및 선발
- 자격: 본 대학교 재학생
- 선발인원: 선착순 30명
- 지원서배부 및 접수일정: '95. 9. 25(월) ~ 10. 20(금)

4.특 전
- 연수과정 이수 후 취득한 성적은 '96년 1학기 교양과목 성적으로 최대 3학점을 인정함.
- 델라웨어대학교 교환학생선발시 우선권 부여

5.기 타
-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여권 및 비자 발급 관련 업무는 연구협력과에서 일괄 처리함.
- 연수기간 및 소요경비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즉시 별도 공고함

6.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 배 부: 각학과장 사무실 및 연구협력처
- 접 수: 연구협력처(서울캠퍼스 본관 1층 소재, Tel.961-4040)

연 구 협 력 처 장

95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접수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세칙 제15조 및 본 대학교 교직과정 운영규정 제4조,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95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아 래-

1.대 상: 95학년도 10월 현재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제4학기 등록학생으로서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고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2.기 간: 1995. 10. 16(월) ~ 10. 27(금)
3.접 수 처: 서울 - 사범대학 교학과
용인 - 용인캠퍼스 교무처
4.제출서류: 1.교직과정 이수 신청서(소정양식) 1부
2.주민등록초본 1통
5.개강초 확인기간에 철저한 확인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1995. 10. 9.

사 범 대 학 장

95학년도 전기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95학년도 전기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아 래-

1.일 시: 1995. 10. 16(월) ~ 10. 27(금)
2.장 소: 서울 - 사범대학 교학과
용인 - 용인캠퍼스 교무처
3.제출서류: 가)무시험 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나)주민등록등본 1통
4.유의사항
가)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교원자격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나)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직과정의 소정학점을 이수한 자라 하더라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미제출자, 성적미달자(전공, 부전공 각각 3.0)의 교원자격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자격증은 졸업식 행사 직후부터 사범대학 교학과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1995. 10. 9.

사 범 대 학 장

이동병무 상담센터 운영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학생들의 병무상담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병무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 음

1.일 시: 1995. 10. 25(수) 09:30~17:00
2.장 소: 대학원 로비
3.내 용: 대학생 병무상담
4.주 관: 서울지방병무청

학 생 처 장

공 고

보건실에서는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 흉부 엑스레이 검진 및 간염검사를 실시합니다.

아 래

●일시: 1995년 10월 11일(수) 09:30~16:30
●장소: 1)엑스레이 검진 - 도서관 앞 이동 검진버스
2)간염검사 - 보건실
●금액: 1)엑스레이 검진 - 무료
2)간염검사 - 1,400원
●결과: 10월 23일 보건실에 문의 바람

서 울 캠 퍼 스 보 건 소

95학년도 정기 신체검사 실시

1.일시: 1)신체검사: 10. 13(금) 09:00~16:30
2)신검결과 상담 및 B형 간염, 유행성 독감접종: 10. 25(수)
2.장소: 용인캠퍼스 보건소
3.검사 접종 항목
1)흉부 X-선 검사: 재학생 전원 대상(검진료 학교부담)
2)B형간염검사
3)취업대비 신체검사-신검안내문 참조(취업용 진단서 발급)
4)B형 간염 및 유행성 독감 접종
4.신체검사 안내문 배부: 각 단과대학 교학과 및 보건소(구내 4036)
5.검진 및 접종기관: 한국의학연구소, 녹십자

용 인 캠 퍼 스 보 건 소

□ 기행문 - 백두산을 다녀와서

기쁨과 감회로 돌아본 우리땅 천지

우리 일행이 연길에서 출발하는 백두산행 버스에 몸을 실은 것은 광복 50주년 8·15가 갓 지난 8월19일 새벽이었다. 가나긴 버스여행에 대한 걱정보다 잔뜩 흐려있는 하늘이 맘에 걸리기 시작 했다. 백두산을 오르는 10명중 6-7명은 궂은 날씨 때문에 천지를 못보고 내려온다는 말이 생각 났기 때문이다. 출발 10분 전짐. 아니나 다를까 사나운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와서 천지를 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반, 지상과 천하 다른 분위기일 것이라는 기대반으로 여행은 시작 되었다.

피곤함이 겹쳐 설풋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날씨는 금새 환하게 개어 있었다. 그 길로 우리 외에 한국인 관광객을 실은 버스·지프차들이 부지런히 오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정말 백두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백두산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이 차안의 수많은 조선족들, 창밖의 한국인들이 이 먼데까지 힘들게 찾아 오는 것일까? 때마침 버스 뒷좌석에 한국 대학생인 듯한 젊은이들이 귀에 익숙한 노래를 흥겹게 부르고 있다.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우리들의 백두산으로 신선한 격레의 숨소리 살아숨는 백두산으로…."

덜컹거림, 긍금함 그리고 흥겨움으로 8시간 정도 달린 버스가 멈춰 선 곳은 '장백산 (長白山)'이란 푯말이 달린 '백두산'의 입구였다. 이곳에서부터 한국인들은 모두 '외빈대접'을 받는다. 열배정도의 입장료에서 화장실까지 중국인보다 두배를 더 내야만 한다. 약간의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버스가 40여분 달려가자 차안이 조금씩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언제 우리가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는지 입가에서 조금씩 탄성 섞인 음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늘 쪽으로 쭉 뻗은 아름드리 침엽수림 사이로 난 산길, 그 길의 끝에서 드러낸 기암절벽들의 병풍은 우리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함이었다. 길게 호흡을 고르자 이번엔 그 웅장함 사이로 어렴풋 '빙각의 활강'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장백폭포'라고 가리키자 그 실체임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곱를거림은 활기찬 역동으로 주위의 모든 소음까지 흡수하고 있었다. 밑으로 흐르는 옥색의 물, 자꾸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분명 청옥색 물이 뿌연 물보라를 일으키며 급이쳐 흐르고 있었다.

'물이 얼마나 맑길래 청록색을 띨 수 있을까'

조금씩 그 청록의 원천을 찾아가는 노상에는 이 산이 분명 화산이었음을 알리는 온천물이 돌에 배여 흐르고 있었고, 그 온천물로 익혔다는 계란은 장사 속의 알팍함보다 더 따습게 다가왔다. 철썩거리는 물살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가슴속 뜀박질 소리에 눈을 들어보니 어느새 우리는 거대한 생명 덩어리 앞에 다달아 있었다. 이젠 더이상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고, 다른 생명체를 토해내는 창조의 역사가 거기 있었다. 비가 없는 건기(建期)에는 세 갈래로 흘렀다는데 며칠새 비가 내리고 나서 흘러내리는 장백의 힘찬 직하(直下)는 정말이지 딱히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이었다.

'저 위에는 하늘과 큰 못 천지일 분 일텐데 어디서 배워온 당당함일까?'

주위의 모든 물줄기를 모으고, 모든 소리들을 모아서 쏟아내는 의연한 기상은 한 땅에서 수없이도 다른 통일의 방법론, 통일의 어지러운 소리들이 하루빨리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로 모여서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의 땅이었을 저 밑의 간도까지 흘러내려 갔음을 소원케 한다. 힘차게 흘러라! 한 민족의 담담함이여! 아주를 넘어서 세계의 곳곳까지!

장백폭포 옆으로 오르면 천지에 이를 수 있다지만 물이 많이 불어 일행은 발걸음을 아래로 재촉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일본 도요타 지프차를 타고 천지로 향했다. 급이급이 놓인 그 길을 오르며 우리 곁에 스며드는 신비한 기운을 조심스레 더듬어 낼 수 있었다. 눈 아래로 점점히 쌓인 구름과 옆으로 흑녹색 방초들은 이 산의 수많은 전설들처럼 신령스럽다는 느낌을 가지게 했다.

짙차가 쉼 없이 달려올라 멈춰 선 곳에서 못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있는 위를 보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급히 뛰었다. 허위 허위 마침내 오른 정상, 천지가 드디어 눈에 들어왔다. 급히 뛰어 오른 숨가쁨, 낮은 기압에서 온 밭은 숨보다 사람의 흐름을 더 강하게 죄오는 급하고 인상깊은 장면이 부지런히 스쳐 지나갔다. 사진의 셔터를 눌러대고,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또 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어쩔 수 없음 이었다. 그 답답한 심정에 주저 앉아 길게 곡이라도 해댈까….

천지는 가장 선명한 파랑색이었고, 숨쉬는 파랑이었고, 감격의 파란색 이었다. 누군가 말하였던 '어느 것이 물빛이고 어느 것이 하늘 빛인가!' 아까 보았던 장백폭포 밑 청옥색 물결의 원천이 여기 있었던 것이다. 그 용감무쌍하던 물결 뒤에 숨어있었던 부동심(不動心)의 큰 그릇이었다. 그러나 그 누가 이곳을 '죽음의 못'이라 부를 것인가. 아직도 선현한 주위의 검붉은 불곡들은 몇만년전 이 땅을 조성하기위해 솟아올랐을 마그마의 뜨거웠던 투쟁의 모습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고요히 숨쉬는 천지. 다시 한번 솟아 올라주기를 은근히 소망한다. 핵무기 연습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오만불손함을 한하여 패전 50주년이 이르도록 역사의 진정한 사죄함 없이 악어의 눈물만 흘려대는 이들을 향하여 거철계, 굵은 굄음으로…. 조선족 중에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북한쪽에서 오르는 백두산이 훨씬 좋다고 한다.

"그래 저기 눈 앞에 보이는 산짝들의 어우러짐이 바로 북한땅이다. 광양과 신의주를 거쳐 이 천지를 건너편에서 볼 날이 어서 오기를. 먼길 고생하지 않고 남북이 나란히 이 곳에 설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천지에서의 체류 일단락의 시간. 아직 제대로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는데 그 모습이 안개로 덮이기 시작했다. 이 천여 미터의 산을 교통편으로 너무 쉽게 올라온 것을 질책하는 아쉬움 속에 어려운 댓가없이 어느것도 오래 누릴 수 없음을 알아 간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도 통일도.

참으로 멀리 들아온 우리네 땅 천지. 다른 물으로 건너와 또 열 몇시간의 열차여행, 또 하룻밤 기숙에 다시 7-8시간의 버스로 오게 된 그 곳을 금방 내려와야 했다. 그 땅에 다다른 기쁨과 환희, 이곳저곳 다 보지 못한 아쉬움들을 가지고 오는 귀환길, 백두산을 수많은 한국인과 조선족들이 멀리 찾아오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 가기 시작했다.

변 용 섭

〈중국 천진 사범대학 유학생 3〉

□ 기행문 - 영남준령(嶺南峻嶺)

버린 양심 줍는 '희망 산악회'

지난 9월30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이른바 '영남알프스'라는 준령을 등반했다. 경북의 운문산에서 시작해 가지산, 능동산, 천왕산, 신불산 그리고 경남의 취서산에 이르는 산군을 이름하여 '영남알프스'라고 하는 것같다.

이번 추계산행은 외대산악부원과 외대 OB산악회원 그리고 경북대 산악부원 등의 합동등반이었다. 이번에 산길을 걸으면서 생각난 문제를 몇자 적고자 한다.

첫째, '영남알프스'의 지명에 대한 유감이다. '영남준령'이나 '영남산군' 등 우리 정서에 맞는 이름도 있는데 굳이 '영남알프스'라고 명명하여 좀 어색했다. 산세가 마치 스위스의 알프스와 같이 아름답고 빼어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추측되지만 왠지 서글펐다.

둘째 산세가 빼어난 준령 곳곳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에 대한 유감이다. 필경 산을 좋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쉬면서 절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에는 영낙없이 오물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었다.

전국 어느 곳에나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이면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너무 심했다. 서울 근교의 명산들은 그나마 많이 정화가 되는 것 같으나 '영남준령' 깊은 골은 여전히 인간에 의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 안스럽고 한심하기까지 했다.

이번 산행에서의 절정은 백련계곡의 장관이었다. 신불산에서 백련마을을 향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대한 계곡은 지리산의 백무동 계곡이나 설악산의 천불동 계곡 못지 않게 맑고 깨끗했다. 백련의 좌측 골에서 마지막 야영을 하면서 실로 오랫만에 모닥불에 둘러앉아 외대와 경북대 산악인들이 정담을 나누는 장면은 영원한 추억이 될 것이다.

불타오르는 화롯불 속으로
추억에 잠기네
조물주와의 신비한 속삭임
우리의 발길세
고요하고 적막한 밤
저 시냇가에 앉아
세상 고락과 번민을 잊고저
나 여기 왔노라

영남준령에 쓰레기와 더불어 양심마저 버리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산 장비와 식량 등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느라 힘들지만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모조리 모아 배낭에 담아서 하산 후 마을 쓰레기통에 분류해 넣는 우리 산악부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직도 발전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져본다.

외대산악부는 물론 경북대산악부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하며, 젊은 산악인들은 물론 우리 대학인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빼어난 산을 보존해야 하겠다.

안 영 호

〈마인어과 교수〉

꿈을 먹는 젊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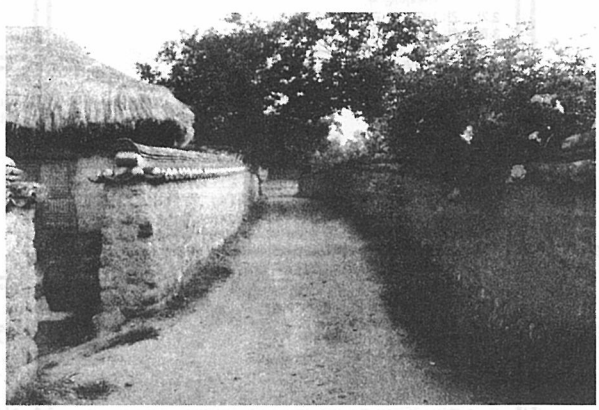
화려하게 치뤄진 세민제의 뒤에는 식사시간 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자봉단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들의 땀방울이 외대의 꿈을 북원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승주 기자

길을 따라

제32회 외대학술상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모집분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3개부문(원고 80매 내외)



제33회 외대문학상

모집분야: 시(3편이상)
소설, 평론, 희곡, 번역(원고 70매 내외)

제출처: 외 대 학 보
마감일: 11월 28일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